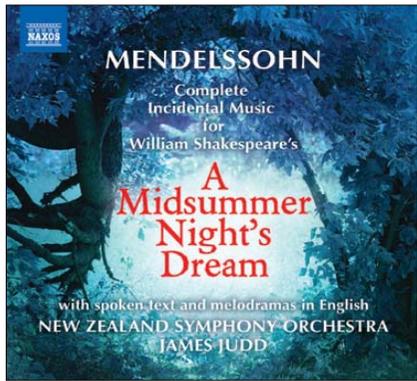


Naxos new releases



8.570794

멘델스존:
한여름밤의 꿈 (연극대사 포함)
제니 윌러먼, 페페 백커(sop)/ 버서티 보이스/
제임스 저드/ 뉴질랜드 심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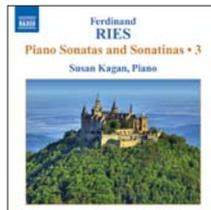
8.572371
치마로사:
레퀴엠
쿠체로바, 크루칠리아코바,
루다, 벨라첵
커크 트레버
카펠라 이스트로폴리타나



8.572521
플루트와 타악기를 위한
음악 Vol.2
마르크 그로웰스(fl)
사라 무라도글루(per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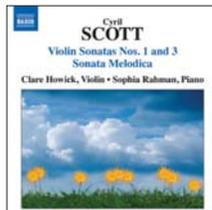
8.572119
슈미트:
교향곡 3번, 샤콘느
바실리 시나이스키
말외 심포니 오케스트라



8.572204
리스:
피아노소나타 Op.9-2 &
Op.26, 꿈 Op.49
수잔 케이건(pf)



8.570942
루빈시타인:
드레스덴의 추억, 2개의 멜
로디, 로망스와 즉흥곡 외
조셉 베노웨츠(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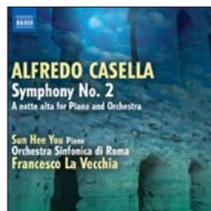
8.572290
스코트:
바이올린소나타 1,3번,
소나타 멜로디카
클레어 하워드(vn)
소피아 라만(pf)



8.572233
아렌스카:
에튀드 Op.41 & 74, 바닷가
에서, 6개의 소품
아담 네이먼(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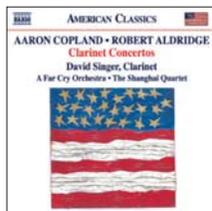
8.572417
루에다:
교향곡 3번 '빛',
상상의 여행
막시미아모 발데스
아스투리아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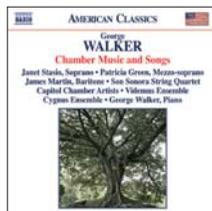
8.572414
카셀라:
교향곡 2번, 피아노와 관현
악을 위한 '심야'
유선희(pf)
프란체스코 라 베키아
오케스트라 산프리카 디 로마



8.559426
렌티나:
오케스트라 홀 모음곡, 첼로
와 피아노를 위한 다섯 소
품, 몽타주 외
플 갠스(bn)
제프리 애플게이트(vn)
제임스 맨벨켄버그(va)
마시 상토(vc) 외



8.559667
코플랜드: 클라리넷협주곡
알드리지: 클라리넷협주곡,
삼바
데이비드 싱어(cl)
어 파 크라이 오케스트라
상하이 쿼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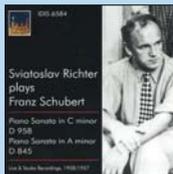


8.559659
워커:
현악사중주 2번, 시, 현을 위
한 서정 외
자넷 스타시오(sop)
선 소노라 쿼텟
비데무스 앙상블
시그너스 앙상블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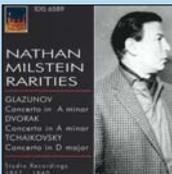


8.572014
브라이언:
교향곡 11, 15번, 닥터 메리
하트 서곡 외
토니 로우, 애드리언 리퍼
아일랜드 RTE 국립 교향악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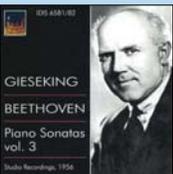
** Dynamic 역사적인 명음반시리즈 **



IDIS 6584
슈베르트:
피아노소나타 D.958, D.845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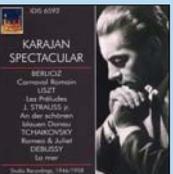
IDIS 6589
클라주노프, 드보르작,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협주곡
나탄 밀스타인(vn)
스타인버그, 스톡
피츠버그 심포니, 시카고 심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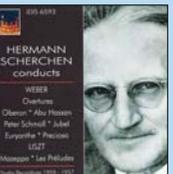
IDIS 6581/82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18-21번,
23,30,31번
빌터 기제킹(pf)



IDIS 6591
아사 하이페츠가 연주하는
프랑스 바이올린소나타
포레: 소나타 1번, 생상: 소나
타 1번, 드뷔시: 소나타 3번



IDIS 6592
리스트: 전주곡,
차이코프스키: 로미오와 줄리엣
드뷔시: 바다 외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빈 필하모닉, 필하모니아



IDIS 6593
베버: 서곡(오베른, 아부하산,
오리안테 외)
리스트: 마제파, 전주곡
헤르만 셰르헨
파리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
빈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



Aulos news

아울로스 뉴스 제 44호 | July 2010

* Hot Issue

Ondine 창립 25주년 기념 2for1 시리즈

기타 반주의 슈베르트 실내악 작품집

** Cover Story

신명의 음악가 임동창 풍류

신명의 음악가 임동창이 선택한 至高至純의 순 음악

신명의 음악가 임동창.

그가 10년간의 침묵을 깨고 우리 전통음악을 연구하여 얻은 '허튼가락'이라는 새로운 작곡법과 연주법을 들고 세상에 다시 나왔다. 1,116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작곡집도 출판하였다. 그러나, 음악사에 한 획을 긋는 대작업을 마친 그가 첫 음반으로 내놓은 것은 자신이 만든 허튼가락 음악이 아니라 우리 전통 정악곡-영산회상(중광지곡), 경풍년/염양춘/수룡음, 수제천 이 세 장의 음반이다. 도대체 왜?



photo by 문덕관

“나로 하여금 오롯한 ‘나의 음악’을 찾고 ‘나는 무엇인가’라는 평생의 화두를 풀게 한 것은, 바로 우리 조상이 남겨준 전통음악이었습니다. 이 전통 음악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우리 조상의 음악이 이렇게 좋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그는 우리 음악 중 특히 정악은 최고의 禪음악, 명상음악이라고 역설한다. 명상음악이란, 우선 몸과 마음을 릴렉스 하도록 편안해야 하며, 또한 편안한 가운데 초롱초롱 빛이 나와 한다고...그래야 초롱초롱하게 자신을 들여다 볼 수 있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악 이아말로 진정한 명상음악이다.

“민속악에는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정악에는 풍류性 즉, 신명이 비밀스럽게 숨어있어요. 초롱초롱한 명상의 상태에서 들으면 생동감이 넘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안으로 머금은 신명이라 대부분은 알아차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도 즐길 수 있는 거죠. 운전할 때 절대 듣지 마요. 큰~ 일나요. 엄청나게 즐리거든요. 하하하”

몸과 마음이 풀어지기 때문이리라. 그래서 음반 녹음 중에 엔지니어가 줄음과 사투를 벌였다는 웃지 못 할 이야기도 있다. (**경풍년/염양춘/수룡음 음반 후반부에 즐던 엔지니어가 머리를 벽에 부딪힌 소리가 아주 작게 들어가 있다.)

이번 음반의 특징

임동창이 꼽은 우리 음악의 '원류', 영산회상, 경풍년/염양춘/수룡음, 수제천. 음악가의 전문적인 견지에서 볼 때, 많은 정악곡들이 크고 작게 중국의 영향을 받은 데 비해 이 세 곡은 우리의 DNA를 온전히 간직하고 있다. 이번 음반은 외적인 꾸밈을 일체 배제하고 아름다운 '원류의 음률'을 그대로

피아노 건반 위에 옮겼다. 전통악기들의 협주곡으로 들을 때보다 음악의 골격이 선명하게 드러나 전통음악에 익숙하지 않은 감상자도 이해하기 쉽다. 한편, 음악을 지극히 사랑하는 감상자라면 완전히 릴렉스된 임동창의 피아노 연주가 '전통'이라는 테두리를 뛰어 넘어 세상의 모든 음악의 사원으로 향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손끝마다 신명이 가득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 천재 피아니스트 임동창. 그의 투명하고 맑은 선율이 당신을 한없이 편안하고 한없이 초롱초롱한 상태로 이끌 것이다. 그리고 음반 속지 첫 머리에 쓰인 그의 글처럼 이 음악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될 것이다.

[음반 소개]

[영산회상(중광지곡)]

“이 음악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울입니다.”

임동창이 꼽은 '우리 음악의 원류', 영산회상. 이 곡은 거문고가 중심이 되는 현악 영산회상(絃樂靈山會相)이며 중광지곡(重光之曲)이라고도 한다. 깊고 깊은 계곡물처럼 맑고 투명한 음악. 점차코 뜬노라면 신선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아무리 불안하거나 속 썩는 일이 있어도 음악을 듣다 보면 사르르 긴장이 풀린다. 마음이 사라지는 평화로운 우리음악.

[경풍년/염양춘/수룡음]

“이 음악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울입니다.”

임동창이 꼽은 '우리 음악의 원류', 경풍년/염양춘/수룡음. 경풍년(慶豐年) 또는 사관풍류라고 하는, 가곡(歌曲)을 노래 없이 연주하는 일련의 악곡. 경풍년(慶豐年), 수룡음(水龍吟), 염양춘(鰲陽春)으로 세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언뜻 듣기에 정(靜)적인 음악일 것 같지만 생글생글 생동감이 넘쳐흐른다. 아주 조금씩 템포가 빨라지는데 음악의 후반부로 가면 자신도 모르게 덩실덩실 어깨춤이 칠 수 있으니, 직장 내에서 들 때는 유념하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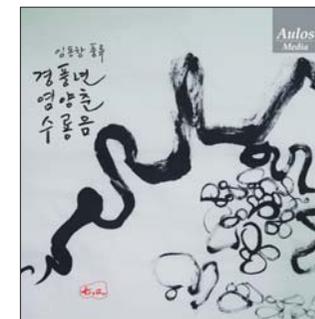
[수제천]

“이 음악은 자신의 사랑을 들여다보는 거울입니다.”

임동창이 꼽은 '우리 음악의 원류', 수제천(壽齊天). 행상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한 여인의 노래, 정음사(井邑詞)에서 유래되었다는 수제천은 '악의 백미'로 손꼽히는 아름다운 곡이다. 유래를 생각하면 아련한 사랑노래 이야기 할 것 같은데, 음악에는 인간사의 희로애락이 떨어져나가고 순수함만 남아있다.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생각한 진정한 사랑이지 않을까. 최고의 품격을 지닌, 우리의 한없이 깊은 사랑 노래.



AMC2-110
영산회상(중광지곡)



AMC2-111
경풍년/염양춘/수룡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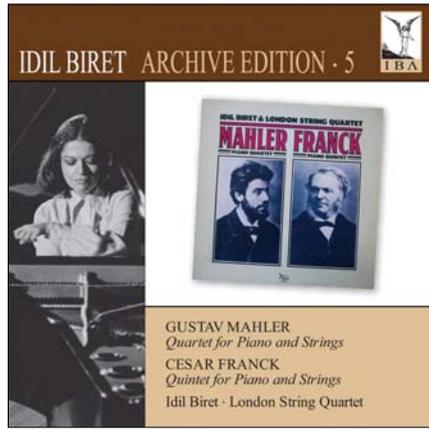


AMC2-112
수제천



Naxos

www.naxo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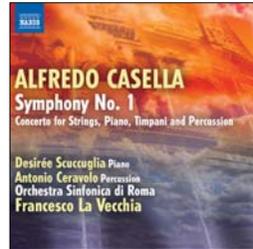
8.571278
말러: 피아노사중주
프랑크: 피아노오중주
런던 스트링 콰텟 + 이딜 비렛(pf)

영화 '서터 아일랜드'에 사용된 이후 수많은 말러 마니아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작품인 말러의 피아노 사중주. 의외로 적당한 음반을 구하기 어려웠던 이 작품에 대한 갈증을 이딜 비렛과 런던 스트링 콰텟의 1980년 녹음이 말끔히 해결시켜 줄 것이다. 세자르 프랑크의 대표적인 실내악 걸작인 피아노 오중주가 함께 수록되었다.



8.570799
베크:
신포니아 Op.3 Nos.1-4
케빈 말론
토론토 챔버 오케스트라

프란츠 이그나츠 베크의 교향곡들은 18세기 중반 초기 고전시대의 교향곡 장르에서 단연 돋보이는 작품들이다. 1762년에 출판된 그의 교향곡집 Op.3은 드라마틱한 구성과 풍부한 화성, 유려한 선율이 어우러진 작품들로 구성된 것으로 이 작곡가가 당대를 대표하는 교향곡 작곡가의 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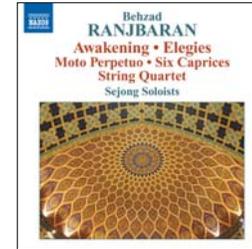


8.572413
카셀라:
교향곡 1번, 피아노와 팀파니를 위한 협주곡
데지레 스쿠글라(pf)
프란체스코 라 벤키아
오케스트라 신포니카 디 로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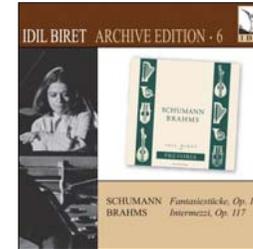
알프레도 카셀라는 레스피기, 피제티와 더불어 근대 이탈리아 기악 음악의 황금기를 구축했던 작곡가였으며, 음악학자로서도 비선율이 어우러진 작품들로 구성된 것으로 이 작곡가가 당대를 대표하는 교향곡 작곡가의 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들이다.



8.572221
베토벤:
현악오중주 Op.29, 104, 푸가 Op.137
파인 아트 콰텟 + 질 사론(va)
 베토벤의 초기 현악사중주와 중기 현악사중주 사이에 완성된 현악오중주 Op.29는 베토벤의 실내악 작품들 중에서도 대중들의 관심이 크게 미치지 못하는 비운의 걸작들 중 하나다. 같은 편성을 위한 Op.104는 그의 초기 작품인 피아노트리오 C단조를 작곡가 스스로 편곡한 것이며, 역시 같은 편성을 위한 만년작인 푸가 Op.137이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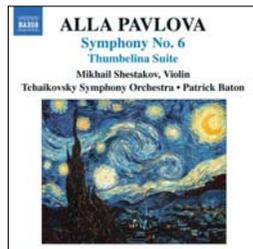
8.570353
라니바란:
현악사중주, 각성, 엘레지, 6개의 카프리스
세종 솔로이스츠 멤버들
 베히자드 라니바란은 이란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활동중인 작곡가다. 전쟁에 대한 평화의 승리를 예찬한 작품인 '각성' (awakening), 서정과 유머가 적절히 배합된 '무궁동', 현악합주를 위한 '엘레지', 자신의 첼로 협주곡의 2악장을 변형한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엘레지', 바이올린의 다양한 기교들을 시험하기 위한 바이올린 듀오를 위한 6개의 카프리스, 그리고 그의 대표 실내악 작품인 현악사중주 등을 수록.



8.571279
슈만:
환상소품집, 브람스: 3개의 인테르메초
이딜 비렛(pf)
 터키의 국보급 피아니스트 이딜 비렛이 남긴 최초의 LP 레코딩이 CD로 복각되었다. 그의 나이 18세 때인 1959년 프랑스의 프레토리아라는 레이블에서 발매되었던 모노 LP를 복각한 것으로, 슈만의 피아노걸작 환상소품집과 브람스의 3개의 인테르메초 Op.117을 함께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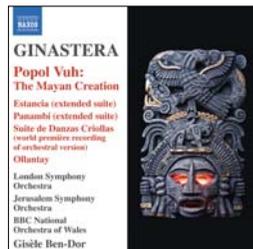


8.572141
투리나:
리트모스, 이탈리아 판타지, 환상적인 시 외
조르디 마스(pf)
 호아틴 투리나의 피아노 작품 시리즈의 6번째 음반으로 그가 완성한 판타지 풍의 작품들을 골라 수록하였다. 무용의 배경음악을 목적으로한 판타지인 '리트모스'를 비롯하여, '다섯 개의 음에 의한 판타지아', '이탈리아 판타지아', '영화를 위한 판타지아', '시간의 판타지아', '환상적인 시' 등의 자유분방하고 개성적인 피아노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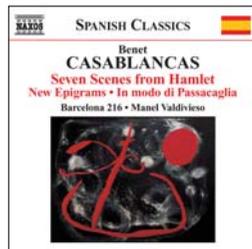
8.579003
파블로바:
교향곡 6번, 엄지공주 모음곡
패트릭 배이턴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심포니

러시아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활동중인 알라 파블로바는 초현실적인 고요함이 중심이 되는 로맨틱한 음악스타일로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확보하고 있는 작곡가다. 그의 교향곡 6번은 고도의 걸작 '별이 빛나는 밤'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으로 이 작곡가 특유의 감성적이고도 정적인 음악 세계가 돋보인다. 안데르센의 동화 '엄지공주'에 기초한 자신의 발레작품 'Thumbelina'에서 발췌한 관현악 모음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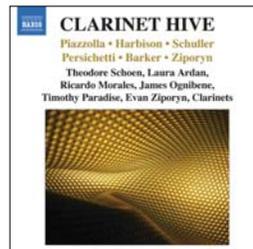
8.570999
히나스테라:
에스탄샤, 크리올라 춤곡, 파남비, 올란테 외
기젤레 벤-도르
런던 심포니, 예루살렘 심포니
BBC 웨일즈 오케스트라

본 음반에 수록된 히나스테라의 다섯 관현악 작품은 고국 아르헨티나를 비롯하여 중미와 남미의 독특한 지역적 소재들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의 초기 대표작인 발레 '파남비'에서 발췌한 관현악모음곡, 잉카문명의 영향을 담은 '올란테', 마야의 신화를 소재로 한 '포폴 부', 팜파를 배경으로 한 발레 '에스탄샤'에서 발췌한 관현악모음곡 등을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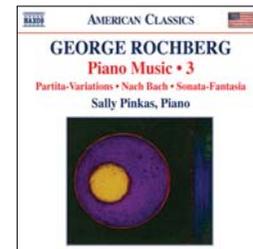


8.579004
카사블랑카스:
햄릿의 7 장면, 에피그램 연작, 작은 야상곡
폴 젯섬(narr)/ 마넬 말디비에스
바르셀로나 216

카탈루냐의 현존 작곡가 베넷 카사블랑카스는 소리의 관능적인 매력을 장고하는 개성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햄릿으로부터의 7장면은 그의 대표작 중 하나로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희곡에서 고른 일곱 개의 장면을 낭송과 함께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다. 12개의 음으로 구성된 주 제선율과 이어지는 40개의 변주로 구성된 '파사칼리아 풍으로'와 정과 동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는 에피그램 연작 등을 수록.



8.572264
클라리넷 하이브
(피아졸라, 하비슨, 퍼시체티, 지포린 외)
디에도어 쇤, 로라 아던, 리카르도 모랄레스, 티모시 파라다이스 외(c)
 클라리넷의 개성적인 소노리티를 만끽할 수 있는 음반. 4대의 클라리넷으로 연주한 피아졸라의 '탱고의 역사'와 바흐와 스트라빈스키의 영향이 느껴지는 하비슨의 작품 '트리오 소나타', 재즈의 영향을 담은 두 작품인 솔러의 '듀오 소나타'와 바커의 '싱글 6', 퍼시체티의 서정적인 작품인 '세레나데' 그리고 직접 양봉을 했던 경험을 반영한 작품인 지포린의 '벌통 (Hive)' 등을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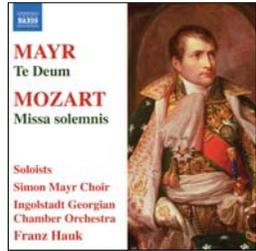
8.559633
록버그:
파르티타 변주곡, 나흐 바흐, 소나타 판타지아
샬리 핀커스(pf)
 조지 록버그의 피아노음악 시리즈의 3탄. 북고 풍의 형식 속에 에너지 넘치는 열정을 담은 작품인 파르티타 변주곡과 하프시코드 연주자 이고르 키프니스에게 헌정된 바흐 오마주 작품인 '나흐 바흐', 그리고 연주자의 풍부한 표현력과 고도의 조절기교를 요구하는 난곡인 소나타-판타지아 등을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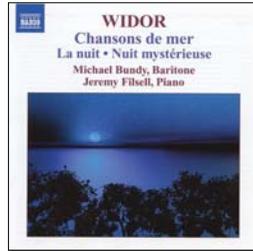
8.572210
마르가르티스:
그리스 전원곡, 그리스 랩소디 외
아포스톨로스 팔리오스(pf)
 그리스 작곡가 로리스 마르가르티스는 독일 낭만주의와 프랑스 인상주의 그리고 모더니즘 음악을 적절히 배합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 스타일을 만들어내었던 인물이다. 그의 피아노 작품은 슈만이나 드뷔시에서와 같은 섬세하고도 감미로운 서정을 보여준다. 마르가르티스의 동료 작곡가였던 펠릭스 페티렉의 민족주의 풍의 작품인 6개의 그리스 랩소디가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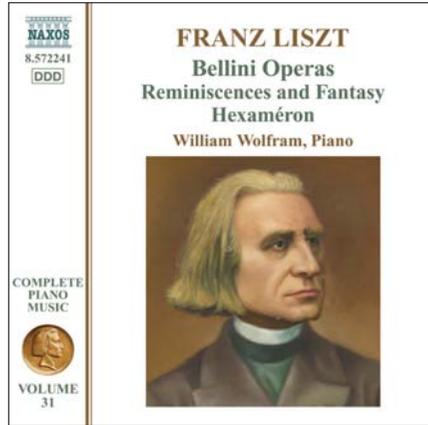
8.572123
하이든:
벨스 미사, 니콜라이 미사
여러 가수들/ 트리너티 콰이어/ J 오웬 버덕/ 레벨 바로크 오케스트라
 불안한 시대의 미사 (Missa in angustis)라는 부제의 미사 D단조는 하이든의 후기 6대 미사 중 세번째에 해당하는 걸작이다. 1800년 에스테라흐지 궁전을 방문했던 영국의 위대한 해군 제독의 이름을 따서 현재는 '벨스' 미사라는 이름으로 더욱 알려져있다. 키리에의 당당한 위용은 위대한 장군의 이름과 근사한 조화를 이룬다. 니콜라이 에스테르하치의 명명축일을 기념하는 성 니콜라이 미사가 함께 수록되었다.



8.570926
마이아:
 테 데움 / 모차르트: 장엄미사
 여러 가수들/ 지문 마이아 콰이어/ 프란초 하옥/ 잉골슈타트 그루지안 챔버
 장엄미사 C장조는 볼프강 아마데우스와 그의 아버지 레오폴드 중 누가 완성한 것인지 불분명한 작품이지만, 18세기와 19세기 초 변하게 연주되어왔다. 작곡가 지문 마이아 역시도 연주를 위해 1802년 이 작품의 스코어를 카피하기도 했다. 마이아의 테 데움은 1805년 밀라노에서 있었던 나폴레옹의 이탈리아 국왕 대관식을 위해 작곡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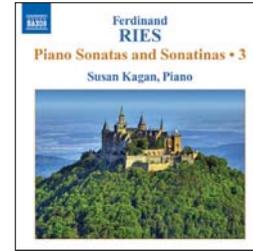
8.572345
비도르:
 가곡들 (바다의 노래, 밤, 신비의 밤)
 마이클 번디(br) 제레미 필젤(pf)
 샤를르 마리 비도르는 근대 프랑스 오르간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다. 그는 오르간을 위한 걸작들 외에도 프랑스 적인 감수성이 잔뜩 배어있는 감상적인 가곡들 또한 백여 편이나 작곡하였다. 그의 연가곡 '바다의 노래'는 인생의 흐름을 바다의 변화무쌍한 이미지에 덧입혀놓은 작품이며, 밤의 정적인 이미지를 노래한 '밤'과 '신비의 밤'을 비롯한 5편의 가곡 소품들이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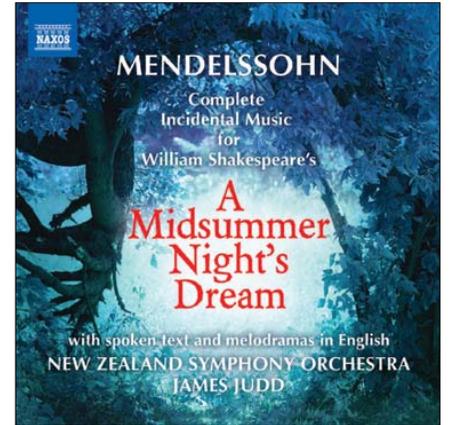
8.572241
리스트:
 몽유병의 여인 판타지, 노르마의 추억, 헥사메론 외
 윌리엄 울프럼(pf)
 닉소스의 리스트 피아노 작품 전집의 31번째 음반. 이탈리아 작곡가 벨리니의 오페라들에 대한 자유로운 스타일의 피아노작품 4작품을 함께 담았다. '몽유병의 여인'에 기초한 그랜드 판타지, '노르마의 회상', '청교도의 회상', '청교도 중의 행진곡을 소재로 삼은 대변주곡인 '헥사메론' 등을 윌리엄 카펠 콩쿠르와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각각 2,3위를 수상했던 미국 피아니스트 윌리엄 울프럼의 연주로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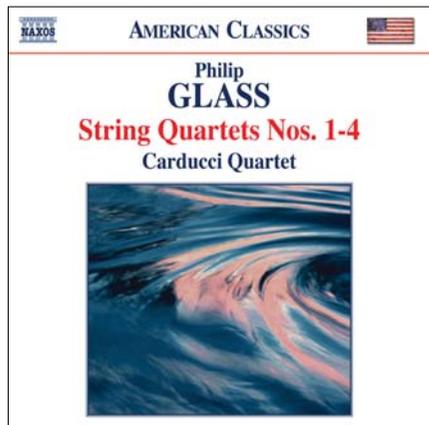
8.570013-14 [2CDs]
Classics for Lovers
 various artists
 리스트의 사랑의 꿈 3번, 포레의 파반느와 시실리안느, 쇼팽의 피아노협주곡 1번 2악장, 델리에스의 로드, 그리그의 피아노협주곡 2악장, 홀스트의 행성 중 비너스, 차이코프스키의 사계 중 10월, 생상의 백조,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2번 2악장과 교향곡 2번 3악장, 쇼스타코비치의 로망스 등 연인을 위한 로맨틱한 선율들을 담은 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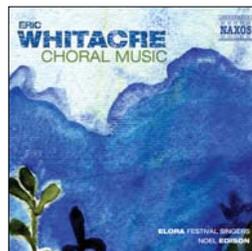
8.572204
리스:
 피아노소나타 Op.9-2 & Op.26, 꿈 Op.49
 수잔 케이건(pf)
 베토벤의 애제자로 알려진 페르디난트 리스는 당대의 걸출한 건반 비르투오조이기도 했다. 그의 피아노작품들은 하이든/모차르트의 스타일에서 클레멘티/베토벤의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과정을 보여준다. 멘델스존과 쇼팽을 예견케하는 로맨틱한 작품인 '꿈', 베토벤의 '비창' 소나타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소나타 Op.26 '불행', 폴로네이즈 풍의 1악장과 무궁동의 4악장이 특징적인 소나타 Op.9-2를 담고 있다.



8.570794
멘델스존:
 한여름밤의 꿈 (연극대사 포함)
 제니 월러먼, 페페 벡커(sop)/ 버서티 보이스/ 제임스 저드/ 뉴질랜드 심포니
 1826년 불과 17세 소년이었던 멘델스존은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희곡 '한여름밤의 꿈'에 기초한 걸출한 서곡을 완성하였다. 16년 후 그는 동일한 희곡에 대한 극부수 음악을 완성하였는데, 세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소년시절의 풍부하고도 싱그러운 상상력을 고스란히 재현해내었다. 본 음반에는 희곡 속의 대사들까지 충실히 수록함으로써 극부수음악 본연의 매력을 느끼게끔 배려하였다.



8.559636
글래스:
 현악사중주 1-4번
 카르두치 퀴넷
 미니멀리즘의 대표 적인 아이콘 작곡가인 필립 글래스. 그가 남긴 5편의 현악사중주 중 4 작품을 함께 수록한 음반이다. 1번이 1966년에 작곡된 순수음악적인 작품인 반면, 2번과 3번은 글래스가 음악을 맡았던 두 영화 '컴퍼니'와 '미시마'의 OST의 단편들을 이용하여 완성한 작품들이다. 4번은 아방가르드 아티스트 브라이언 벅락을 추모하는 작품으로 슈베르트와 드보르작 등의 영향이 느껴지는 대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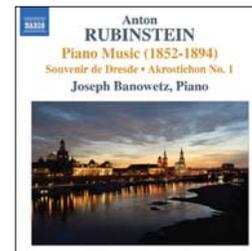
8.559677
휘태커: 합창작품집
 노엘 에디슨
 엘로라 페스티벌 싱어즈
 에릭 휘태커는 아르보 패르트나 존 태브너를 연상케 하는 신비로운 음악스타일로 합창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미국의 현존 작곡가이다. 본 음반은 그의 대표적인 합창곡들을 엄선한 것으로, 그 중 'Lux aurumque', 'Little birds', 'Water Night' 등은 지난 5월 28일 수원시립합창단에 의해 국내에서도 연주되었던 작품들이다. 그 외에도 'A boy & A girl', 'Sleep', 'When David heard'와 같은 대표작들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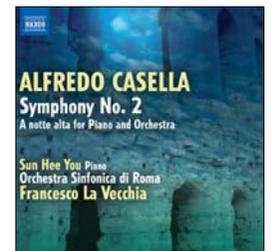
8.660250-52 [3CDs]
모차르트:
 이도메네오
 쿠르트 슈트라이트 외/ 마르코 주다리니/ 나폴리 산 카를로 오페라
 음악학자 알프레드 아인슈타인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이도메네오'를 가리켜 '모차르트와 같은 가장 위대한 천재도 일생에 단 한 번 만들어 낼 수 있을 정도의 위대한 걸작'이라고 평한 바 있다. 2004년 나폴리 산 카를로 극장에서의 실황을 담은 본 음반은 1781년 뮌헨 초연 버전을 기초한 것으로, 독일의 정상급 테너 쿠르트 슈트라이트가 타이틀롤을 열연하였다.



8.572371
치마로사:
 레퀴엠
 쿠체로바, 크루질리아코바, 루다, 벨라ček/ 커크 트레버/ 카펠라 이스트로폴리타나
 당대의 인기 오페라 작곡가였던 치마로사는 극음악에 대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당시로는 큰 스케일의 레퀴엠을 완성하였다. 이는 1787년 상트 페테르부르크 주재 프랑스 대사의 부인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완성된 작품으로, 진혼의 비감을 적절히 드러내는 입당송과 극적인 진혼의 날, 그리고 열민 종교적 희열을 보여주는 상투스, 평화롭게 전곡을 마무리하는 렉스 에테르나 등이 특히 인상적이다.



8.570942
루빈시타인:
 드레스덴의 추억, 2개의 멜로디, 로망스와 즉흥곡 외
 조셀 베노웬츠(pf)
 안톤 루빈시타인은 19세기 러시아 음악의 산파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리스트의 제자로 독일 낭만음악을 적극 추종했으며, 뛰어난 피아니스트로서도 맹활약했다. 본 음반에는 그의 가장 유명한 피아노소품인 F조의 멜로디 그 외에도 최만년의 회고작인 '드레스덴의 추억', 러시아의 향토색을 보여주는 러시아인 세레나데, 서정성과 초절기교를 겸비한 로망스와 즉흥곡 등의 피아노작품들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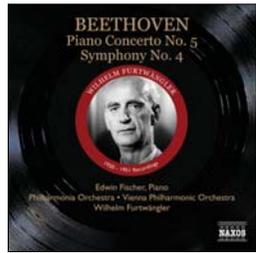


8.572414
카셀라:
 교향곡 2번,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심야'
 유선희(pf)/ 프란체스코 라 베키아/ 오케스트라 시몬니카 디 로마
 카셀라는 레스피기, 피체티와 더불어 근대 이탈리아 관현악의 황금기를 구축했던 작곡가였으며, 음악학자로서도 비발디를 비롯한 여러 이탈리아 바로크 작곡가들을 재조명한 인물이다. 교향곡 2번은 그가 크게 감동받았던 말러 교향곡 2번의 영향을 담은 작품이며, 자신의 연애담을 표제음악 형태로 표현한 작품인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심야'는 로마를 중심으로 활동중인 우리 피아니스트 유연화가 독주를 맡았다.



Naxos Historical & Musicals

www.naxos.com



8.112025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5번, 교향곡 4번
 에드빈 피셔(pf)/ 빌헬름 푸르트벵
 글러/ 필하모니아, 빈 필하모닉

레코딩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 레코딩의 하나로 손꼽히는 에드빈 피셔와 빌헬름 푸르트벵글러의 1951년 녹음이 마크 오버트-손의 복각을 통해 다시 태어났다. 달리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이 녹음 외에도 1950년 빈 무지크페라인에서 빈 필하모닉과 함께 녹음한 베토벤의 교향곡 4번이 함께 커플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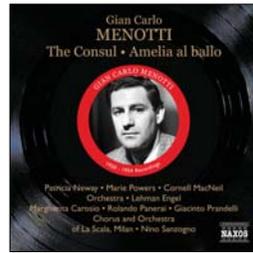
8.112051
프로코피에프: 소나타 2번
 글라주노프: 소나타 2번
 메트너: 소나타 외
 에밀 길헬스(pf)

에밀 길헬스의 활동 초기인 1937년부터 1954년 사이에 구 소련에서 남겼던 음원들을 복각한 것으로, 메트너의 피아노소나타 3번, 프로코피에프의 피아노소나타 2번, 글라주노프의 피아노소나타 2번 등과 함께 차이코프스키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소품들을 함께 수록하였다.



8.110770
쇼팽:
 스케르초 1,3,4번, 녹턴 2,19번,
 뱃노래
 벤노 모이세비치(pf)

1890년 우크라이나 오데사에서 태어난 벤노 모이세비치는 9살 때 안톤 루빈시타인 상을 수상할 정도로 타고난 천재였다. 본 음반은 2차대전 전후로 그가 남긴 소품 레코딩들을 모은 것으로 1939년과 1941년에 각각 녹음된 두 버전의 뱃노래를 비롯하여 야상곡 2, 19번, 스케르초 1,3,4번, 폴로네이즈 9번 등을 담고 있다. 라흐마니노프가 편곡한 멘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 중 스케르초가 보너스로 함께 수록되었다.



8.112023-24 [2CDs]
메노티:
 영사, 아멜리아 무도회에 가다
 여러 가수들/ 레만 앙젤, 니노 산조노/ 라 스킨라

20세기 이탈리아 오페라의 대표 작곡가이자 88올림픽 기념 오페라인 '시집가는 날'의 작곡가인 메노티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그의 오페라 두 편이 녹음을 통해 복각되었다. 그의 대표적인 오페라 걸작인 '아멜리아 무도회에 가다'는 1954년 밀라노 라 스킨라에서 녹음된 것이며, 그의 첫 장편 오페라인 '영사'는 초연 직후인 1950년 브로드웨이 오리지널 캐스팅이 남긴 녹음이다.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LPO
 www.lpo.co.uk

MN Records
 www.mnrecords.com



LPO-0046
엘가: 교향곡 1번, 바다풍경
 자넷 베이커(ms)
 버넌 핸들리/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984년 2월 23일 로얄 페스티벌 홀에서 있었던 엘가 서거 50주기 기념 콘서트 실황이 최초로 CD로 출시되었다. 영국 근대 관현악 스펙트리스트인 버넌 핸들리가 지휘봉을 잡았던 이날 콘서트에서는 작곡가의 교향곡 1번과 더불어 5개의 시로 구성된 칸타타 풍의 작품인 '바다 풍경'이 함께 연주되었다. 영국의 국보급 성악가 데임 자넷 베이커가 풍부한 표정을 담아 이 걸출한 성악곡을 감동적으로 노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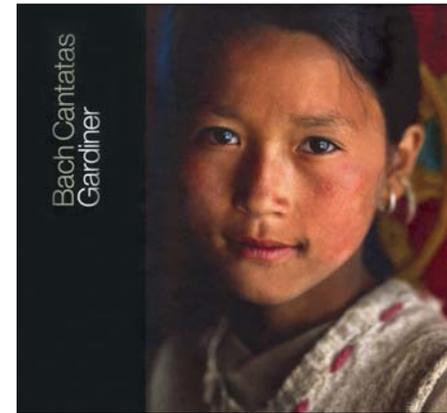
MNRCD117
마이클 니만 & 모션 트리오
 아코디언 트리오로 연주하는 마이클 니만의 음악들

폴란드의 재능 넘치는 아코디언 삼중주단인 모션 트리오가 연주하는 마이클 니만의 음악들. 'In Re Don Giovanni', 'Miranda'와 같은 니만의 대표작들이 아코디언의 강렬한 비음을 통해 새생명을 얻었다. 'Knowing Ropes', 'Wedding Tango', 'If' 등의 이들의 공동창작곡들 역시 독특한 개성을 자랑한다. 니만 자신의 피아노 독주로 담은 영화 피아노 중의 히트 싱글 'The Heart Asks Pleasure First'도 감미롭게 그치지 않다.



Soli Deo Gloria [SDG]

www.monteverdi.co.uk/recordings



SDG 168 [2CDs]
막달레나 코체나, 조안 린(sop)/ 사라 밍가르도, 윌리엄 타워스(alt)
크리스토프 겐츠, 펠 애그뉴(te)/ 피터 하비, 고를트 슈바르츠(bass)
몬테베르디 합창단/ 존 엘리엇 가디너/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츠

2000년 11월 제노바의 산 로렌초 성당과 그린위치의 구 왕립해군대학 채플에서 있었던 콘서트를 담은 것으로, 각각 삼위일체 후 20, 21번째 주일을 위한 칸타타들을 수록하였다. CD1은 칸타타 BWV162로 장엄하게 시작된다. 오보에 다모레와 첼로 피콜로의 오블리가토가 곁들여진 아름다운 소프라노 아리아를 담은 BWV49가 이어지며, 천국의 혼례 잔치를 아름답게 그려낸 BWV180으로 마무리된다. CD2는 마가복음에서 텍스트를 취한 BWV109의 뛰어난 개시합창으로 시작된다. 트럼본이 사용된 희귀한 예인 BWV38와 온화한 분위기의 BWV98을 거쳐서 풍성한 화성과 확신에 찬 힘이 느껴지는 BWV188로 마무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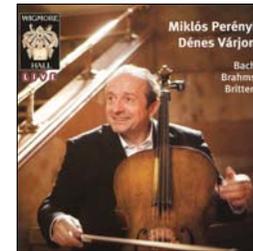
- CD 1 삼위일체 후 20번째 주일을 위한 칸타타
 BWV49 나는 가서 열심히 구하라라
 BWV162 나는 혼례식에서 보았노라
 BWV180 자신을 가꾸라, 사랑하는 영혼아

- CD 2 삼위일체 후 21번째 주일을 위한 칸타타
 BWV38 굶주린 자에게 네 빵을 나눠라
 BWV98 하나님의 일은 모두 선하다
 BWV109 나는 믿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BWV188 나는 굳게 믿노라



Wigmore Hall Live Series

www.wigmore-hall.org.uk



WHLive0035
브리튼:
 첼로스나타, 브람스: 첼로스나타 2번, 바흐: 모음곡 3번
미클로스 페레니(va)
데네스 바리온(pf)

헝가리가 낳은 세계적인 첼리스트 미클로스 페레니의 2009년 1월 27일 위그모어홀 리사이틀 실황. 페레니는 이 나라를 대표하는 첼로 솔리스트인 동시에 리스트 음악원의 교수로서 많은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다. 바흐의 무반주 모음곡 3번과 브람스의 첼로스나타 2번, 그리고 브리튼의 첼로스나타로 구성된 이 리사이틀을 통해 이 연주자의 심원한 예술세계를 유감 없이 만나 볼 수 있을 것이다.



WHLive0036
베토벤:
바이올린소나타 1,4,7,8번
알리나 이브라기모바(vn)
세드릭 티베르기엔(pf)

하이페리언을 통해 발매된 바흐 무반주 소나타와 파르티타로 크게 주목 받았던 러시아 출신의 미녀 피아니스트 알리나 이브라기모바와 1998년 롱티보 콩쿠르 우승자이자 2009년 11월 서울시향과 협연무대를 가지기도 했던 프랑스 피아니스트 세드릭 티베르기엔이 위그모어홀에서 베토벤 소나타 시리즈를 시작하였다. 그 첫 음반으로 1,4,7,8번을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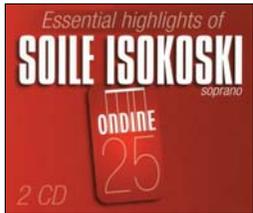


Ondine

www.ondine.net

[Ondine 창립 25주년 기념 2 for 1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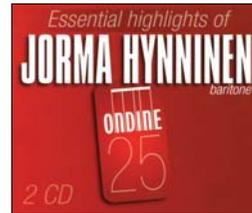
핀란드의 청량한 기운을 머금은 뛰어난 녹음으로 오디오파일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온딘 레이블이 자신들의 창립 25주년을 기념하여 레이블의 대표 아티스트 다섯 사람의 대표 음반 2장씩을 묶어서 특별한 가격으로 선보입니다. 기존의 주얼케이스 발매반 두 장이 종이 아웃박스에 묶인 형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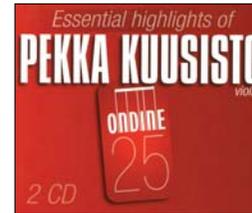
ODE251-2D
Essential Highlights of Soile Isokoski
R 슈트라우스:
4개의 마지막 노래와 관현악 가곡들 + 핀란드 가곡집
핀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리릭 소프라노 소일레 이소코스키는 1987년 카디프 콩쿠르에서 2등을, 1988년 엘리 아멜링 콩쿠르에서는 우승을 차지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1987년 미미로 핀란드 국립오페라에 데뷔한 이래, 빈 슈타츠오페, 바스티유 오페라, 라 스칼라, 베를린 슈타츠카펠레, 쟈퍼오페, 메트 등의 일급 오페라 극장들과, 잘츠부르크, 에딘버러, 프롬스, 탕글우드 등의 세계적인 음악축제들을 누비며 활동 중이다. R 슈트라우스의 4개의 마지막 노래는 그라모폰상, CHOC상, Classicstoday 10/10 등을 받은 이 가수의 대표적인 명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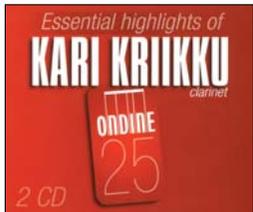
ODE252-2D
Essential Highlights of Karita Mattila
시벨리우스:
가곡집 + 카리타 마틸라 라이브
현존 최고의 오페라 스타 중 한 사람인 핀란드의 소프라노 카리타 마틸라는 1983년 카디프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1985년 파미나로에서는 우승을 차지하였고, 이후 빈 슈타츠오페, 메트, 바스티유, 시카고 리릭 오페라,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등에서 모차르트, 바그너, R 슈트라우스 등의 스페셜리스트로 각광받았다. 연가곡 '꽃 노래'를 비롯한 시벨리우스의 대표 가곡들을 엄선한 음반과 더불어 2000년 헬싱키에서 있었던 라이브 음반에서는 바그너의 '전당의 노래', 드보르작의 '달의 노래', 베르디의 '이기고 돌아오라' 등의 오페라 아리아들에서부터 마릴린 몬로의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에 이르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통해 이 걸출한 가수의 매력을 만나게 된다.



ODE253-2D
Essential Highlights of Jorma Hynninen
슈베르트: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 + 슈베르트: 겨울여행
핀란드의 베테랑 바리톤 요르마 힌닌넨이 부른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여행'과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를 함께 묶었다. 힌닌넨은 1969년 핀란드 국립오페라에 데뷔한 이후, 빈 슈타츠오페, 메트, 라 스칼라, 바이에른 슈타츠오페, 함부르크 슈타츠오페,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등을 두루 거치며 오페라 가수로서의 경력을 쌓았고, 슈베르트, 슈만, 브람스 등의 독일 리트와 시벨리우스의 가곡 등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보였다.



ODE254-2D
Essential Highlights of Pekka Kuusisto
비발디:
사계 + 바흐: 바이올린 협주곡 1,2번,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외
페카 쿠시스토는 클래식과 재즈 양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핀란드의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다. 1995년 19세의 나이로 시벨리우스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고, 이후 시카고 심포니,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LA 필, 필하모니아, 버밍엄 심포니 등의 정상급 악단들과의 협연을 통해 유럽 음악계의 주목을 받는 젊은 거장으로 성장했다. 수록된 두 음반은 모두 자신이 상주 아티스트로 있는 타피올라 심포니와 협연한 것으로, 비발디의 사계는 Klassik Heute 10과 The Daily Telegraph의 이주의 음반에 선정되었으며, 자신의 형 야코 쿠시스토와 함께 녹음한 바흐의 바이올린협주곡 집도 호평을 받았던 음반이다.



ODE255-2D
Essential Highlights of Kari Kriikku
모차르트 & 볼터: 클라리넷 협주곡
크루셀: 클라리넷 협주곡집
핀란드의 세계적인 클라리넷 연주자 카리 크리키쿠는 현대음악에서 발군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연주자다. 현대음악 외의 정통 클라리넷 레퍼토리들에서도 훌륭한 녹음들을 다수 남겼는데, 그 중 대표적인 두 음반을 함께 묶었다. 원곡대로 바셋 클라리넷으로 연주한 모차르트의 협주곡과 클라리넷을 위한 협주곡으로서는 가장 시대가 앞선 것들인 독일 작곡가 볼터의 D조 클라리넷을 위한 3개의 협주곡이 함께 수록된 음반과 베토벤과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핀란드의 작곡가 크루셀의 협주곡 3편을 수록한 음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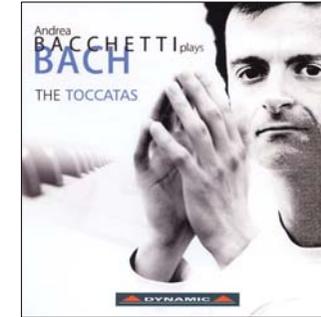


Dynamic

www.dynamic.it



CDS632
1670년 로마(마스트라델라, 로나티, 코렐리, 만벨리의 음악들)
마리아 팔롬보/ 일 콘체르토 다리안나
음반 타이틀 그대로 17세기 중후반 로마에서 활약했던 여러 작곡가들의 아담하면서도 매력적인 기악곡들과 아름다운 선율의 성악곡들을 갈무리한 음반이다. 로나티의 신포니아와 파르티타, 만벨리의 소나타, 스트라델라의 성악곡 등의 일부 수록곡들은 연주단체인 콘체르토 다리안나의 멤버들에 의해 최초로 재발굴된 작품들이다. 그동안 이탈리아 바로크 음악 애호가들에게 적극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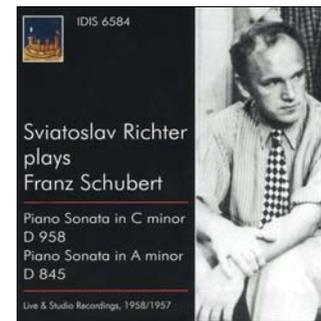


CDS658
JS 바흐:
토카타 BWV910-916
안드레아 바케티(pf)
BBC 뮤직 매거진의 이달의 음반과 일본 레코드 예술의 추천음반에 선정되었던 '인벤션과 신포니아'에 이어서 다이나믹을 통해 선보이는 안드레아 바케티의 두 번째 바흐 음반. 바흐가 바이마르 시절 완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하프시코드를 위한 바흐의 토카타 7편을 피아노로 연주한 것으로 간결명료한 터치로 자신만의 독특한 바흐관을 제시하고 있는 이 젊은 피아니스트의 재능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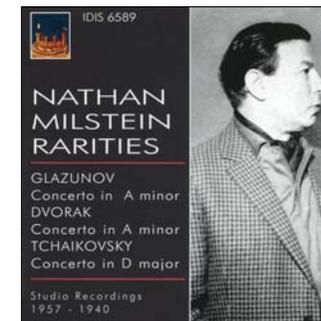


CDS654
프로코피예프:
바이올린소나타 1,2번, 5개의 멜로디 파벨 베르만(vn)
바르단 마미코니안(pf)
1987년 파가니니 콩쿠르에서 2위를, 1990년 인디애나폴리스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바이올리니스트 파벨 베르만은 러시아의 위대한 피아니스트 라자르 베르만의 아들이기도 하다. 프로코피예프가 남긴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두 편의 소나타들과 성악곡을 편곡한 5개의 멜로디를 1716년산 스트라디바리우스 '베르티어'의 매력적인 사운드로 녹음하였다.

역사적인 명음반 시리즈



IDIS6584
슈베르트:
피아노소나타 D.958, D.845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pf)
구소련이 배출한 가장 걸출한 피아니스트의 한 사람인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는 일찍이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들의 진가를 발견했던 선각자이기도 했다. 본 레코딩은 슈베르트의 소나타에 대한 리히터의 남다른 열정을 다시금 상기시켜 준다. 소나타 D.958은 1958년 부다페스트에서의 실황이며, 소나타 D.845는 1957년 모스크바에서의 스튜디오 레코딩이다.



IDIS6589
글라주노프, 드보르작,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협주곡
나탄 밀스타인(vn)/ 스타인버그, 스톡 피츠버그 심포니, 시카고 심포니
20세기의 위대한 러시아 비르투오조 나탄 밀스타인은 길고도 명망 높았던 연주 이력에 비해 레코딩을 풍족하게 남기지 못했다. 대표적인 슬라브 협주곡 세 작품을 담고 있는 본 음반은 밀스타인 팬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다. 글라주노프와 드보르작의 바이올린협주곡들은 1957년 스타인버그/ 피츠버그 심포니와 협연한 스튜디오 레코딩이며, 차이코프스키의 협주곡은 1940년의 스튜디오 레코딩이다.



IDIS6581/82 [2CDs]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18-21번, 23, 30, 31번
발터 기제킹(pf)
1956년 발터 기제킹은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전곡녹음을 위해 런던으로 향하나, 도중에 갑작스런 발병과 때이른 그의 죽음으로 이 프로젝트는 미완성으로 끝나고 만다. 본 음반은 당시 녹음이 완료되었던 소나타들 중 21번 '발트슈타인'과 23번 '열정'을 비롯한 7작품을 2장의 CD에 나누어 수록한 것으로, 화려한 테크닉과 섬세한 서정을 겸비했던 이 위대한 피아니스트의 마지막 열정을 생생하게 전달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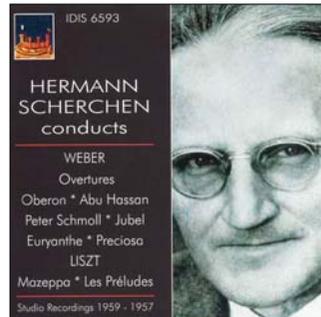
IDIS6591
야사 하이페츠가 연주하는
프랑스 바이올린소나타
포레: 소나타 1번
생상: 소나타 1번
드뷔시: 소나타 3번

야사 하이페츠는 방대한 레퍼토리를 자랑하는 20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바이올린소나타들의 녹음은 그리 많이 남기지 못했다. 그래서 이 음반이 더욱 반갑게 느껴진다. 1930년 녹음인 포레의 소나타 1번과 1950년 녹음들인 드뷔시의 소나타 3번과 생상의 소나타 1번을 수록하였으며, 세 소나타 모두 엠마누엘 바이가 반주를 맡았다.



IDIS6592
리스트: 전주곡
차이코프스키: 로미오와 줄리엣
드뷔시: 바다 외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빈 필하모닉, 필하모니아

1946년부터 1958년까지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빈 필과 필하모니아와 함께 남겼던 스튜디오 레코딩들 중에서 그의 장가외도 같은 인기 관현악 걸작들을 엄선하여 담은 음반. 1946년 녹음인 슈트라우스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와 차이코프스키의 '로미오와 줄리엣', 1953년 녹음인 드뷔시의 '바다', 1958년 녹음들인 베를리오즈의 '로마의 사육제', 리스트의 '전주곡' 등을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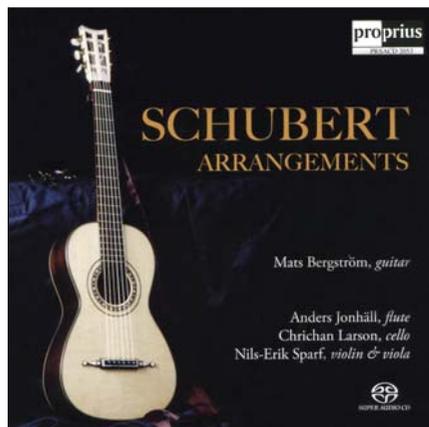


IDIS6593
베버: 서곡(오베른, 아부하산, 오이리안테 외)
리스트: 마제파, 전주곡
헤르만 셰르헨
파리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
빈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

추억의 독일 거장 헤르만 셰르헨은 현대 음악의 옹호자로 유럽 음악계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지만, 정통 로맨틱 레퍼토리들에서도 자신의 강렬한 카리스마를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1959년 파리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오베른, 아부하산, 오이리안테, 페터 유물 등의 베버의 대표 서곡들과 1957년 빈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리스트의 대표 교향시들인 전주곡과 마제파가 이를 증명해 줄 것이다.

proprius Proprius

www.proprius.com



PRSACD2053
슈베르트: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소나타 D장조 외 (Hybrid-SACD)
마츠 베르그스트룀(guitar)
닐스 에릭 스파르프(vn)
크리한 라르손(va)외

로맨틱 기타의 맑고 아담한 울림으로 담아낸 슈베르트의 아름다운 실내악 작품들. 바이올린 소나타 D384의 피아노 반주는 기타를 통해 한결 단아한 맵시를 드러내며 첼로와 기타로 연주한 아르페지오네 소나타와 바로크 플루트와 기타로 연주한 15개의 오리지널 댄스의 다정다감한 매력 또한 각별하다. 슈베르트가 플루트, 기타, 비올라, 첼로의 사중주를 위해 편곡한 마티에카의 노투르노가 음반의 대미를 장식한다.



BR Klassik

www.br-klassik.de



900106
모차르트: 클라리넷협주곡 / 코른골드: 바이올린협주곡 / 글리에르: 하프협주곡
원헌 ARD 콩쿠르 우승자들-박혜윤(vn)
제바슈티안 만츠(c) / 엠마누엘 세이송(harp)

2009년 17세의 나이로 원헌 ARD 콩쿠르에서 우승했던 박혜윤의 수상기념 콘서트 실황음반. 코른골드의 바이올린협주곡은 서정미의 극치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박혜윤의 결선당시 연주곡이기도 했다. 같은 해의 또 다른 우승자인 프랑스 출신의 하피스트가 근대 이후 가장 걸출한 하프협주곡인 글리에르의 협주곡을 연주하였고, 2008년 우승자인 독일 클라리넷 연주자 제바슈티안 만츠가 연주한 모차르트의 너무나도 유명한 협주곡 A장조도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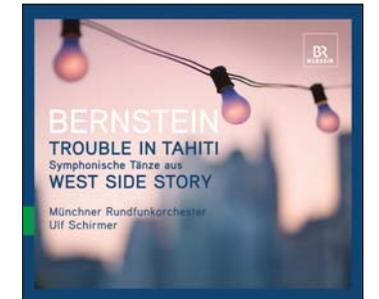
900501 [2CDs]
헨델:
이집트의 이스라엘사람들
바이에른 방송합창단/ 페터 디스트라/ 콘체르트 쾰른

헨델의 영어 오라토리오 '이집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출애굽기와 시편에서 발췌한 리브레토에 곡을 붙인 것으로, '요셉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스라엘인들', '출애굽', '모세의 노래'의 3파트로 구성되었으며, 합창이 극의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독일의 일곱 시대악기 앙상블인 콘체르트 쾰른과 페터 디스트라의 영입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바이에른 방송합창단의 시너지가 대만하다.



900302
파라디시 글로리아 21
(21세기 종교작품들)
바이에른 방송합창단/ 울프 슈르머/ 원헌 방송교향악단

파라디시 글로리아는 원헌 헤르츠 예수 교회에서 펼쳐지는 현대중고음악 연주회 시리즈를 말한다. 2008년과 2009년의 실황들 중에서 가장 큰 반향을 일으켰던 네 작품을 담았다. 예수 탄생 이전의 카오스와 이후의 희망을 표현한 크루이센트의 'Abismes', 전통적인 라틴 텍스트에 현대적인 분위기를 담은 도더러의 '살베 레지나', 명상적인 분위기의 관현악곡인 보츠니의 'Archipe', 쿨리의 합창곡 'Introductio-Meditatio-Magnificat-Epilogus' 등이다.



403571900300
번스타인: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타히티에서의 소동
킴 크리스웰(디나)/ 로드니 질프리(샘)/ 울프 슈르머/ 원헌 방송교향악단

레너드 번스타인은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교묘히 넘나들었던 재기넘치는 작곡가이기도 했다.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에서 발췌한 '심포닉 댄스 모음곡'에는 'Mambo', 'Cha-Cha', 'Rumble' 등의 감각적인 춤곡들이 담겨있다. 1막 오페라 '타히티에서의 소동'은 킴 크리스웰과 로드니 질프리라는 정상급 성악자들 외에도 삼인조 재즈 보컬 트리오가 참여하여 이 작품의 독특한 정취를 보다 돋보이게 하였다.



900710
모차르트:
플루트협주곡 1번, 오보에협주곡, 교향곡 32번
이레나 그라페나우어(fi)/ 프랑소와 틀뢰(b)/ 권터 반트, 콜린 데이비스/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1981년에 녹음된 모차르트의 플루트협주곡 1번과 2001년에 녹음된 오보에협주곡은 현재 솔리스트로 최고의 명성을 구가하고 있는 연주자들인 이레나 그라페나우어와 프랑소와 틀뢰가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남긴 녹음들이다. 특히 플루트협주곡은 거장 권터 반트가 지휘를 맡은 점이 눈길을 끈다. 오보에협주곡과 1985년의 실황녹음인 교향곡 32번은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봉을 잡았다.



Opus ARTE www.opusart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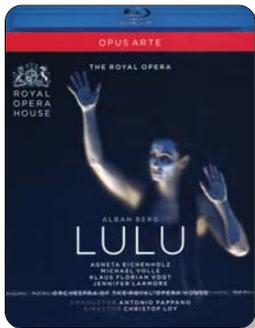
OpusArte OABD 7060D

푸치니: 라보엠

테오도르 일린카이(로돌포), 히블라 게르츠마바(미미), 가브리엘레 비비아니(마르첼로)
인나 두카츠(무제타) 외/안드리스 넬손스(지휘) / 로얄 오페라 코벤트 가든

전통의 라 보엠 프로덕션, 젊은 피를 통해 다시 태어나다

파리의 가난한 연인들의 애틋한 사랑을 담은 푸치니의 <라 보엠>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작이다. 본 영상은 2009년 12월 런던 로얄 오페라하우스에서의 실황으로, 1974년 처음 공개된 이후 무려 35년 이상의 긴 세월동안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는 존 코플리의 정교하고도 사실적인 프로덕션을 리바이벌한 것이다. 젊은 마에스트로 안드리스 넬손스와 최근 각광받고 있는 젊은 성악가들이 이 전통적인 프로덕션에 싱그러운 생기를 불어 넣었다. 2008년 <에프게니 오네긴>의 타티아나로 코벤트 가든에서 성공적인 데뷔 무대를 가졌던 러시아 출신의 소프라노 히블라 게르츠마바가 우아한 미미를, 이 프로덕션을 통해 깜짝 데뷔한 루마니아의 젊은 테너 테오도르 일린카이가 뜻밖의 로돌포를 열연하였다. 이탈리아의 바리톤 가브리엘레 비비아니와 러시아 출신의 미국 소프라노 인나 두카츠도 각각 마르첼로와 무제타에 최적화된 연기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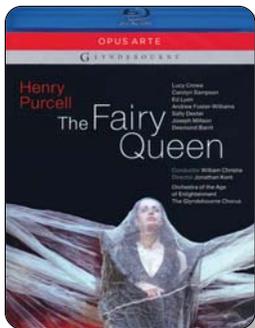


OpusArte OABD 7070D

베르크: 룴루

20세기 최고의 팜므 파탈 룴루, 그 어두운 편력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룰루>는 알반 베르크(1885~1935)의 유작으로 전작 <보체크>와 함께 그의 이름을 20세기 최고의 작곡가 반열에 올려놓은 걸작이다. 미완으로 남겨진 3막 오케스트레이션은 뒤늦게 프리드리히 체르하에 의해 완성되어 1979년 파리 오페라 극장에서 전막 초연되었다. 독일 오페라임에도 파리에서 전막 초연된 것은 주인공의 캐릭터가 원래 프랑스 고유의 영역이었던 팜므 파탈의 전형이기 때문일 것이다. 독일 무성영화의 대표작 <판도라의 상자>(1929)와 같은 내용으로 프랑크 베네킨트의 희곡 두 편을 기초로 했다. 룴루는 남편, 출판사 편집장인 신 박사, 그의 아들, 화가, 레즈비언인 백작부인과 자유분방한 애정행각을 벌이며 그들을 파멸시키는 팜므 파탈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에 의해 쇠락하는 희생자이기도 하다. 베르크는 이런 모습을 음력주의와 치밀한 유도통기를 이용하여 가장 독일적인 방식으로 완성하고 있다. 본 영상물은 2009년 로얄 오페라 실황으로 스웨덴 소프라노 아그네타 아인헬름초가 타이틀 룴을 맡고 상징적 연출의 선두주자로 떠오른 크리스토프 로이가 지극히 단순화된 무대에서 등장인물간의 관계를 선명하게 부각시켰다. 특히 한쪽 입이 치켜 올라가는 룴루의 냉소적인 미소가 이 공연의 상징이라 할 것이다. 로얄 오페라 음악감독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를 맡았다.



OpusArte OABD 7065D

퍼셀: 요정의 여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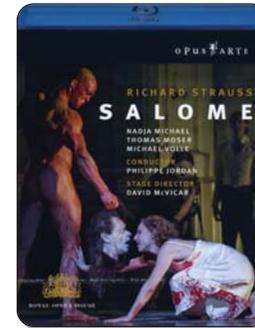
루시 크로우(주노), 캐롤린 샘슨(밤), 에드 리용(아담), 앤드류 포스터 윌리엄스(코리든) 외
윌리엄 크리스티(지휘) / 계몽시대 오케스트라

춤과 노래, 연극과 코미디가 멋지게 어우러진 바로크 종합예술의 결정체

헨리 퍼셀의 세미오페라(또는 마스크) <요정의 여왕>은 멘델스존의 극부수음악으로도 잘 알려진 셰익스피어의 대표 희극 '한여름 밤의 꿈'을 토대로 작성한 작자미상의 리브레토에 음악을 붙인 것이다. 작곡가의 때 이른 죽음 이후 분실되었던 이 작품의 스코어가 20세기 초에 다시 재발견되면서 퍼셀을 대표하는 작품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본 영상은 2009년 7월 글라인드본 오페라에서 있었던 공연을 담은 것으로, 작곡가의 탄생 350주년을 기념하여 브루스 우드와 앤드류 피녹이 새롭게 정리한 퍼셀 협회의 새로운 에디션을 바로크 극음악 스페셜리스트 윌리엄 크리스티의 지휘로 무대에 올린 것이다. 폴 브라운의 창의적인 무대미술과 재기로 가득한 조나선 켄트의 연출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캐롤린 샘슨을 위시한 성악진들의 감미로운 열창과 계몽시대 오케스트라의 흥겨운 연주가 귀를 즐겁게 만든다.



R. 슈트라우스: 살로메



OpusArte OABD 7069D

영국 오페라계를 강타했던 화제의 공연

2008년 3월 로얄 오페라하우스 코벤트가든 무대에서 펼쳐졌던 R.슈트라우스의 '살로메'는 영국 오페라계의 크나큰 충격파를 안겨주었던 화제의 공연이었다. '살로메'는 복음서에 기록된 세례요한의 마지막 순간을 지극적으로 각색 해놓은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에 기초한 작품이다. 근친 애, 스트립댄스, 잔혹한 참수, 잘린 머리에 대한 끔찍한 애정행각 등 온갖 문란하고도 참혹한 소재들이 등장하는 이 문제의 오페라는 맥비카의 그로테스크하고도 애로틱한 개성을 맘껏 펼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재가 되고 있다. 작품 후반부를 뒤덮는 붉은 선혈과 너무나 사실적으로 만들어진 요한의 잘린 목은 웅만한 호러무비를 능가하는 공포감을 안겨주며, 정상급 오페라무대를 통해 현역 최고의 살로메로 급부상한 나디아 마카엘의 혼신의 열연은 맥비카가 정성껏 준비한 잔혹 드라마의 놀라운 정점을 만들어 낸다. 우람한 저음이 돋보이는 토마스 폴러의 열창과 비정상적인 헤롯의 행태를 리얼하게 연기한 토마스 모저의 열연도 놓칠 수 없으며 망나니 역의 특별 채용된 보디빌더 출신 배우의 근육질 몸매는 색다른 볼거리를 안겨준다.

ARTHAUS MUSIK www.arthaus-musik.com



Arthaus 101 498

칠레아: 아드리아나 르쿠브뢰르

감동의 모든 요소를 고루 갖춘 숨겨진 보석 같은 명작 오페라

프란체스코 칠레아의 4막 오페라 <아드리아나 르쿠브뢰르>(1902)는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각 막마다 유명한 아리아와 인상적인 장면이 고루 배치되어 있으며 실존 여배우를 주인공으로 한 점, 한 남자를 둘러싼 두 여인의 살 떨리는 대결, 독살에 의한 비극적인 결말 등 감동적인 오페라의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 좋은 공연만 만난다면 최고의 명작인 것이다. 본 영상물은 2009년 토리노 왕립 오페라 실황이다. 18세기 파리의 코메디 프랑세즈를 배경으로 한 작품답게 전통적인 관점에 의한 장중하면서도 세련된 무대와 의상을 구현하였으며, 풍요로운 음성과 뛰어난 연기를 자랑하는 소프라노 미카엘라 카로시(아드리아나), 우리 시대 최고의 감성적 테너 마르셀로 알바레스(마우리치오)의 노래가 단연코 일급이다.



Arthaus 101 4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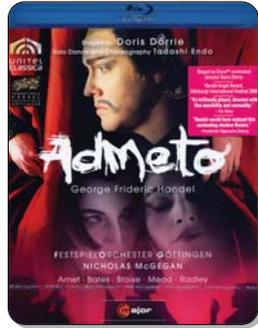
풀랑: 카르멜 수녀들의 대화

등골을 섬뜩하게 만드는 14번의 단두대 칼날 소리

'살베 레지나'를 노래하는 수녀들의 송고한 합창이 진행되는 동안, 소름끼치는 금속성과 함께 기요틴의 칼날이 차례차례 그들의 목 위로 내려쳐진다. 20세기 오페라를 대표하는 명장면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이 장면은 바로 풀랑의 오페라 '카르멜 수녀들의 대화'의 대단원이다. 풀랑의 이 오페라는 폰 폰 포르트의 소설 '단두대의 마지막 여자'를 각색한 베르나노스의 영화 시나리오를 기초로 한 것으로, 이 내용은 실제 프랑스 대혁명당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신앙과 삶 사이에서 번민하는 주인공 불량수의 고뇌와 마지막 순간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는 그의 결단을 풀랑 특유의 세련된 오케스트레이션과 유려한 선율미를 통해 표현해낸 걸작 오페라다. 본 DVD는 2008년 함부르크 슈타츠오페에서 있었던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지휘자 시몬 영이 지휘봉을 잡았다. 여러 바그너 오페라 프로덕션을 통해 독특한 심미안을 보여줬던 연출가 니콜라우스 렌호프는 간결하고도 상징적인 무대를 배경으로 이 감동적인 순교 오페라를 그려나간다. 특히 마지막 순교 장면의 강렬함은 기존의 두 영상물(1999년 랭 국립오페라, 2004년 라 스칼라)을 압도한다.



www.cmajor-entertainmen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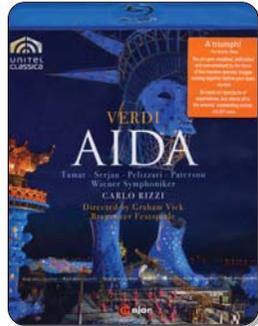


C-Major 702104

헨델: 아드메토

일본 과기 역사극으로 재탄생한 헨델의 걸작 오페라

'테살리아의 왕, 아드메토'는 헨델의 창작력이 최고조에 달했던 무렵에 완성된 3막 오페라로, 18세기 전반기를 대표하는 오페라 걸작으로 손꼽힌다. 1727년에 이 오페라의 초연무대는 당대 최고의 프리마돈나들인 프란체스카 쿠초니와 파우스티나 보르도니, 그리고 인기절정의 카스트라토였던 세네시노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영화 '파니 핑크'로 잘 알려진 독일의 여류 영화감독 도리스 피리는 고대 그리스 테살리아의 왕 아드메토와 그를 둘러싼 두 여인 알체스테와 안티고나의 엇갈린 사랑을 다룬 이 오페라를 한편의 그로테스크한 일본 역사극으로 완전히 바꿔놓았다. 일본 전국시대 풍의 분장과 의상 외에도 일본색이 완연한 각종 무대장치들이 유효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일본의 전위무용가 타다시 엔도와 그의 동료들이 온몸으로 표현해내는 각종 동물들과 원귀들도 흥미롭다. 공포영화 '링'의 사다코를 연상케 하는 섬뜩한 모습으로 '질투'를 의인화시켜놓은 연출도 인상적이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헨델 극음악 스페셜리스트인 니콜라스 맥게간이 이 프로덕션의 높은 음악적 완성도를 보장해준다.



C-Major 702404

베르디: 아이다

타티아나 세란(아이다)/ 루벤스 펠리치리(라다메스)/ 야노 타마르(암네리스)/ 안 페터슨(아모나스로) 외 카를로 리치/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

스펙터클의 극치를 보여주는 호반 무대 위의 아이다

매년 여름 보덴호수에서 펼쳐지는 브레겐츠 페스티벌은 야외무대의 특성을 살린 화려하고도 파격적인 무대 미술로 오페라 애호가들의 큰 주목을 받아왔다. 그레이엄 비크가 연출한 2009년의 <아이다> 프로덕션은 수상무대라는 브레겐츠의 개성과 이 오페라 본연의 스펙터클한 볼거리를 멋지게 결합시켰던 화제만발의 공연이었다. 비크는 고대의 이집트가 아닌 현대의 미국으로 오페라의 배경을 바꾸어 놓았다. 식상한 스펝크스와 오벨리스크 대신 뉴욕 자유의 여신상의 거대한 파편 앞에서 이 장대한 오페라가 펼쳐지며, 두건을 뒤집어 쓴 에티오피아 포로들의 모습은 관타나모 수용소의 이라크 포로들을 떠올리게 한다. 개성장면의 거대한 코끼리 모형이나 피날레를 멋지게 장식하며 승천하는 배 등등 볼거리가 즐비하며, 호수의 수면 그 자체가 오페라의 배경으로 멋지게 활용되었다.



www.euroarts.com



EuroArts 2057754

베를린 필 2009년 발트뷔네 콘서트

러시아의 웅장음치는 리듬으로 장식된 여름밤의 음악축제

2009년 발트뷔네 콘서트는 '러시안 리듬'이라는 주제로 사이먼 래틀이 직접 지휘봉을 잡았다.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발레로 시작된 콘서트는 라흐마니노프의 협주곡 3번과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이라는 막강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었다. 라흐마니노프의 협주곡 3번에서는 이 작품의 뛰어난 해석가로 명성을 쌓은 예핌 브론프만이 눈부신 건반위의 아크로바틱을 펼쳐나간다. '봄의 제전'에서는 래틀의 리듬감각과 베를린 필의 연주역량이 빛난다. 대미를 장식하는 링케의 'Berliner Luft'에서는 오랜만에 타악기주자로 되돌아간 래틀의 재미있는 모습도 만날 볼 수 있다.



OpusArte DVD

www.opusarte.com



Opus Arte DVD OA 1027D

푸치니: 라보엠

테오도르 일린카이(로돌포), 히블라 게르츠마바(미미), 가브리엘레 비비아니(마르첼로) / 인나 두카츠(무제타) 외/ 안드리스 넬손스(지휘)/ 로얄 오페라 코벤트 가든

전통의 라 보엠 프로덕션, 젊은 피를 통해 다시 태어난다

파리의 가난한 연인들의 애뜻한 사랑을 담은 푸치니의 <라 보엠>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작이다. 본 영상은 2009년 12월 런던 로얄 오페라하우스에서의 실황으로, 1974년 처음 공개된 이후 무려 35년 이상의 긴 세월동안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는 존 코플리의 정교하고도 사실적인 프로덕션을 리바이벌한 것이다. 젊은 마에스트로 안드리스 넬손스와 최근 각광받고 있는 젊은 성악가들이 이 전통적인 프로덕션에 싱그러운 생기를 불어 넣었다. 2008년 <에프게니 오네긴>의 타티아나로 코벤트 가든에서 성공적인 데뷔 무대를 가졌던 러시아 출신의 소프라노 히블라 게르츠마바가 우아한 미미를, 이 프로덕션을 통해 깜짝 데뷔한 루마니아의 젊은 테너 테오도르 일린카이가 풋풋한 로돌포를 열연하였다. 이탈리아의 바리톤 가브리엘레 비비아니와 러시아 출신의 미국 소프라노 인나 두카츠도 각각 마르첼로와 무제타에 최적화된 연기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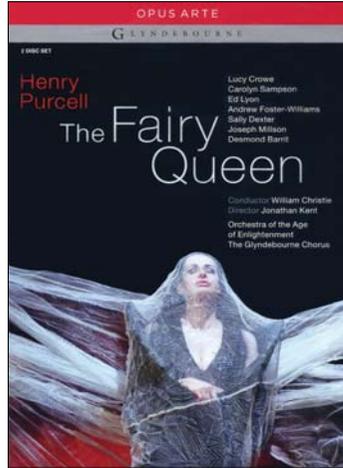
베르크: 룰루

20세기 최고의 팜프 파탈 룰루, 그 어두운 편력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룰루>는 알반 베르크(1885~1935)의 유작으로 전작 <보체크>와 함께 그의 이름을 20세기 최고의 작곡가 반열에 올려놓은 걸작이다. 미완으로 남겨진 3막 오케스트레이션은 뒤늦게 프리드리히 체르하에 의해 완성되어 1979년 파리 오페라 극장에서 전막 초연되었다. 독일 오페라임에도 파리에 서 전막 초연된 것은 주인공의 캐릭터가 원래 프랑스 고유의 영역이었던 팜프 파탈의 전형이기 때문일 것이다. 독일 무성영화의 대표작 <판도라의 상자>(1929)와 같은 내용으로 프랑크 베네킨트의 희곡 두 편을 기초로 했다. 룰루는 남편, 출판사 편집장인 쉰 박사, 그의 아들, 화가, 레즈비언인 백작부인과 자유분방한 애정행각을 벌이며 그들을 파멸시키는 팜프 파탈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에 의해 쇠락하는 희생자이기도 하다. 베르크는 이런 모습을 음렬주의와 치밀한 유도동기를 이용하여 가장 독일적인 방식으로 완성하고 있다. 본 영상물은 2009년 로얄 오페라 실황으로 스웨덴 소프라노 아그네타 아인헨홀츠가 타이틀 룰을 맡고 상징적 연출의 선두주자로 떠오른 크리스토프 로이가 지금껏 단순화된 무대에서 등장인물간의 관계를 선명하게 부각시켰다. 특히 한쪽 입이 치켜 올라가는 룰루의 냉소적인 미소가 이 공연의 상징이라 할 것이다. 로얄 오페라 음악감독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를 맡았다.



Opus Arte DVD OA 1034D [2DV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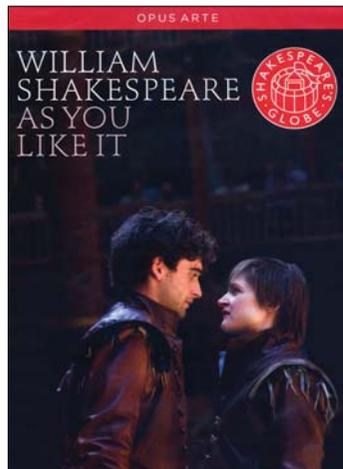
Opus Arte DVD OA 1031D [2DVDs]

퍼셀: 요정의 여왕

루시 크로우(주노), 캐롤린 샘슨(밤), 에드 리용(아담), 앤드류 포스터 윌리엄스(코리든) 외
윌리엄 크리스티(지휘)/ 계몽시대 오케스트라

춤과 노래, 연극과 코미디가 멋지게 어우러진 바로크 종합예술의 결정체

헨리 퍼셀의 세미오페라(또는 마스크) <요정의 여왕>은 멘델스존의 극부수음악으로도 잘 알려진 세익스피어의 대표 희극 '한여름 밤의 꿈'을 토대로 작성한 작자미상의 리브레토에 음악을 붙인 것이다. 작곡가의 때 이른 죽음 이후 분실되었던 이 작품의 스코어가 20세기 초에 다시 재발견되면서 퍼셀을 대표하는 작품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본 영상은 2009년 7월 글라인드본 오페라에서 있었던 공연을 담은 것으로, 작곡가의 탄생 350주년을 기념하여 브루스 우드와 앤드류 피녹이 새롭게 정리한 퍼셀 협회의 새로운 에디션을 바로크 극음악 스페셜리스트 윌리엄 크리스티의 지휘로 무대에 올린 것이다. 폴 브라운의 창의적인 무대미술과 재기로 가득한 조나선 켄트의 연출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캐롤린 샘슨을 위시한 성악진들의 감미로운 열창과 계몽시대 오케스트라의 흥겨운 연주가 귀를 즐겁게 만든다.



Opus Arte DVD OA 1032D

셰익스피어: 뜻대로 하세요

글로벌가 선사하는 셰익스피어 희극의 진수 <뜻대로 하세요>

티아 새록의 연출이 셰익스피어의 가장 위트 있고 영리한 희극 <뜻대로 하세요>을 만났다는 것으로 기대를 불러일으킨 글로벌 극장 상황에서는 젊지만 노련한 나오미 프레데릭과 잭 래스키가 각각 사랑에 빠진 두 주인공 로잘린드와 올란도를 연기한다. 최소한의 변화로 장면의 전환을 보여주는 글로벌의 무대 역시 관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준다. 실 틸 없이 무대를 오르내리고 관객 사이를 누비는 배우들과 하나가 되고, 내내 얽혀있던 관계가 한 순간에 풀어져 버리면서 행복한 네 쌍의 커플이 탄생하는 장면은 셰익스피어 기법에서 탄생 한 궁극의 해피엔딩이라고 부를만하다. 특히 글로벌의 셰익스피어 시리즈의 최대 장점은 배우들의 정확한 영국식 발음과 야외무대에서 빛을 발하는 명확한 발성에 있다.



Arthaus DVD

www.arthaus-musik.com

칠레아: 아드리아나 르쿠브뢰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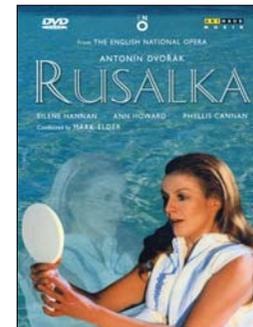


Arthaus DVD 101 497

감동의 모든 요소를 고루 갖춘 숨겨진 보석 같은 명작 오페라

프란체스코 칠레아의 4막 오페라 <아드리아나 르쿠브뢰르>(1902)는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각 막마다 유명한 아리아와 인상적인 장면이 고루 배치되어 있으며 실존 여배우를 주인공으로 한 점, 한 남자를 둘러싼 두 여인의 살 떨리는 대결, 독살에 의한 비극적인 결말 등 감동적인 오페라의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 좋은 공연만 만난다면 최고의 명작인 것이다. 본 영상물은 2009년 토리노 왕립 오페라 실황이다. 18세기 파리의 코메디 프랑세즈를 배경으로 한 작품답게 전통적인 관점에 의한 장중하면서도 세련된 무대와 의상을 구현하였으며, 풍요로운 음성과 뛰어난 연기를 자랑하는 소프라노 미카엘라 카로시(아드리아나), 우리 시대 최고의 감정적 테너 마르셀로 알버레즈(마우리치오)의 노래가 단연코 일급이다.

드보르작: 루살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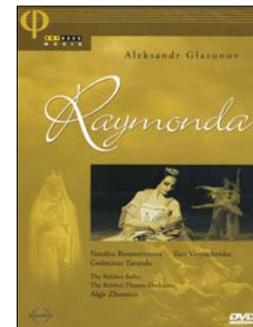


Arthaus DVD 102 019

물의 요정 이야기를 프로이트 식으로 다룬 데이빗 파운트니 프로덕션

'물의 요정'에 대한 민담과 동화는 유럽 곳곳에 산재하는데, 그 기본구조는 거의 같다. 즉 인간 남자와 금지된 사랑에 빠진다는 것, 남자의 배신, 그리고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다. <인어공주>, <운디네>와 더불어 대표적인 물의 요정 이야기인 <루살카>를 오페라로 작곡한 이는 체코의 안토닌 드보르작이다. 특히 1막에 나오는 '달에게 부치는 노래'는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곡이다. 이 영상물은 체코어 가사를 영어로 바꿔 부른 1986년 잉글리쉬 내셔널 오페라 실황이다. 영국의 대표적인 오페라 연출가 데이빗 파운트니가 프로이트적으로 해석하여 성(性)에 눈을 떠가는 어린 소녀의 이야기로 바꾸었다. 재발매되면서 이전에 없었던 영어자막이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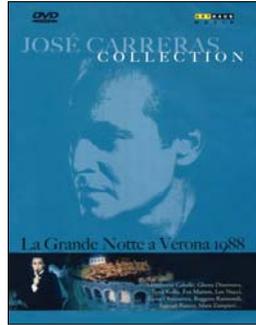
발레: 라이몬다



Arthaus DVD 100 719

러시아 황실발레의 제왕, 마리우스 프티파의 마지막 걸작

마리우스 프티파는 이전의 발레를 집대성하여 고전 발레를 완성했다. 이것이 이른바 러시아 황실 발레다. <돈 키호테>, <라 바야데르>, <잠자는 숲 속의 미녀>, <백조의 호수>로 그 최고봉에 도달한 프티파는 1898년, 80세의 노구를 이끌고 새 발레를 초연했으니 그것이 <라이몬다>다. 기독교와 이슬람의 갈등을 기본구조로 깔고 있으며, 배경이 헝가리여서 동유럽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불소이의 차르'로 불린 유리 그리가로비치는 프티파의 안무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었는데, 그 1989년 실황이 여기 담겼다. 아내 나탈리아 베스메르트 노바가 타이틀 롤을 춘다. 이 발레는 2010년 가을, 한-러 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국립 발레단과 불소이 발레단이 서울에서 공동 공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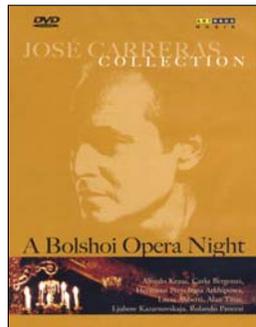


Arthaus DVD 101 403

호세 카레라스 컬렉션 – 1988년 베로나 콘서트

병마를 이긴 카레라스가 주도한 베로나 페스티벌 75주년 기념 콘서트

쓰리 테너의 일원으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던 스페인 테너 호세 카레라스가 백혈병으로 쓰러진 것은 1987년 이었다. 그러나 불굴의 의지로 1년 만에 회복하여 다시 무대에 섰다. 카레라스는 아프리카 빈곤 퇴치를 위해, 또 본인이 설립한 백혈병 재단을 위해 갈라 콘서트를 열면서 많은 성악가들과 교류했는데, 그 마당발의 결실은 1988년 여름, 오페라 페스티벌 탄생 75주년을 맞는 베로나 야외극장에서 맺어졌다. 몽세라 카바예, 르네 콜로 등 당시 최고의 대가와 나탈리아 트로이스카야 같은 떠오르는 신예가 망라된 그야말로 오페라 올스타 출연진이다. 카레라스는 마지막에 무대에 올라 라라의 '그라나다'를 부르는데, 언제 아팠냐는 듯이 그야말로 위대하고 감동적인 열창을 들려주었다.



Arthaus DVD 101 409

호세 카레라스 컬렉션 – 1989년 볼쇼이 콘서트

병마를 이긴 카레라스가 주도한 베로나 페스티벌 75주년 기념 콘서트

테너 호세 카레라스는 아프리카 빈곤 퇴치를 위해, 또 본인이 백혈병에서 극적으로 생환한 후 설립한 재단을 위해 갈라 콘서트를 열면서 많은 성악가들과 교류했다. 1988년에는 아르메니아에 대규모 재진이 발생하여 25,000명의 목숨을 앗아갔는데, 이들을 돕기 위한 자선 공연을 러시아의 볼쇼이 극장에서 열기로 했다. 이때 카레라스가 그간의 마당발 위력을 발휘하여 세계적인 성악가들을 한데 모으고 자신은 패트런 역할을 했다. 공연은 1989년 가을에 이루어졌다. 여러 대가들을 볼 수 있지만 특별히 노익장을 자랑한 카를로 베르곤치, 알프레도 크라우스, 롤란도 파네라이가 반갑다. 막 떠오르는 신예 소프라노였던 루치아 알리베리티, 볼쇼이의 경이적인 베이스 예프게니 네스테렌코도 놀랍다.

베르디: 오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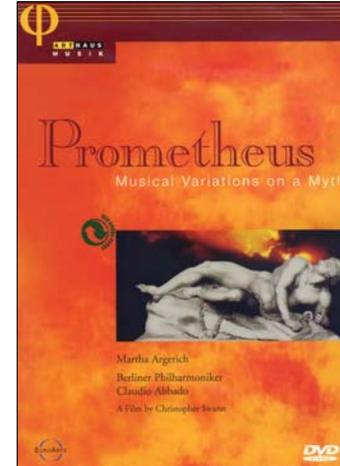
연극적 진실성이 그 진가를 발휘한 역사적인 독일어 <오텔로>

1960년대까지는 유럽에서도 외국 오페라를 자국어로 번역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가 극장에 자막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본래 언어로 부르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 <오텔로>는 1965년 빈 국립극장이 TV방송을 위해 스튜디오 촬영한 것으로 관행에 따라 독일어로 부른다. 그런데 놀랍게도 셰익스피어 원작의 분위기를 더 잘 살리는 효과를 만들어냈다. 당시 빈 오페라계의 떠오르는 신예 오토 쉐크의 비범한 연출은 만년의 베르디가 이룩한 연극적인 사실성을 놀랍도록 잘 살려내고 있다. 흑백이고 모노지만 연출에 관한한 최근 영상물보다 보여주는 것이 많으며, 볼브강 빈트가센을 위시하여 독일어권에서 이 오페라에 가장 어울리는 명가수들이 망라되었다.

[흑백화면 / 모노 녹음]



Arthaus DVD 101 505



Arthaus DVD 101 717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주제로 한 음악 작품들

마르타 아르헤리치(피아노)/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클라уди오 아바도

아르헤리치, 아바도, 베를린 필이 불을 설명하다

불을 훔친 죄로 제우스의 벌을 받아 낮에는 독수리에게 간을 뜯기고 밤에는 다시 간이 생성되는 고통을 당한다는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를 주제로 한 음악 작품들을 담은 영상물이다. 먼저 나오는 곡은 베토벤의 유명한 <프로메테우스의 불>이다. 지휘자 클라уди오 아바도와 베를린 필 단원들의 얼굴, 그리고 화면 전체가 붉어지면서 서주가 시작된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리스트의 교향시 5번 <프로메테우스>가 10여분에 걸쳐 연주된다. 매우 격정적인 음악이다. 화면이 어둡게 바뀌면 붉은 빛과 푸른빛이 번갈아 번득이는 가운데 스크랴빈의 환상적인 작품 <불의 시 프로메테우스>가 연주된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과 함께 마르타 아르헤리치가 뜨겁게 달궜던 피아노 선율을 풀어놓는다. 현대 작곡가 루이지 노노의 1992년 작품인 모음곡 <프로메테오>도 담겼다. 프로메테우스 신화의 내용과 작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마지막으로 처리되어 이해를 돕고 있다.

도니제티: 사랑의 묘약

아킬레스 마차도, 파바로티와 견줄만한 새로운 네모리노 출현!

베로나의 야외극장 못지않게 아름다운 이탈리아 마체라타의 아레나 스페리스테리오에서 벌어진 2002년 7월 실황. 특히 네모리노를 부른 아킬레스 마차도에게 주목하라. 베로나 페스티벌의 <리콜레토>(TDK DVD로 출시)로 주목받은 이 작은 키의 테너는 너무나 잘 다듬어진 리리코 레제로의 음성과 자연스런 연기로 루치아노 파바로티 이래 최고의 네모리노를 창조한 듯싶다. 아디나 역의 발레리아 에스포지토, 돌카미라 역의 어윈 쉬르트 또한 젊은 성악가들이지만 매력적인 노래와 연기로 100% 만족을 안겨준다. 이 아레나의 약점을 역전시켜버린 연출도 훌륭하다. 공간과 음향 문제로 오케스트라 박스를 무대의 뒤편에 자리 잡도록 했는데 연출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케스트라 단원과 지휘자가 때때로 마을 사람의 일원인 것처럼 가수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교감하도록 장치한다. 일종의 전원극이기도 한 이 오페라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멋진 효과가 아닐 수 없다.

[구, TDK DVUS-OPELAMOR 과 동일영상물]



Arthaus DVD 107 007



Arthaus DVD 101 507

베르디: 팔스타프

오토 에델만(팔스타프)/ 리하르트 판 프로만(펜톤)/ 멜리타 무셀리(알리체)
그라치엘라 슈티(앤헨) 외/ 넬로 산티/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

위대한 저음가수 오토 에델만의 역사적인 팔스타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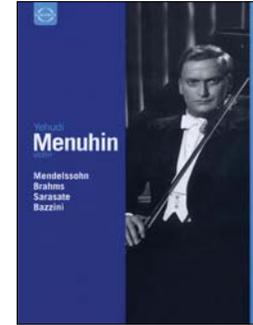
〈팔스타프〉는 오페라의 왕 베르디의 마지막 작품이자, 그의 작품으로는 매우 보기 드문 희극 오페라다. 늙은 똥보기사 존 팔스타프의 좌충우돌과 그를 골려주는 주위 인물들의 소동이 어우러진 이 유쾌한 오페라는 노대가의 마지막 창작열을 녹여낸 위대한 음악적 정수를 보여준다. 본 영상은 1963년에 오스트리아 방송과 남독일방송이 공동 제작한 스튜디오 촬영물로, 20세기 중반을 대표했던 위대한 저음가수 오토 에델만이 타이틀 롤을 맡은 역사적인 기록이다. 젊은 시절의 넬로 산티가 지휘봉을 잡았으며, 멜리타 무셀리, 그라치엘라 슈티, 엘리자베트 횡겐과 같은 추억의 여가수들의 왕년 모습 역시 반갑다. 흑백 화면에 모노 녹음이지만 시기에 비해 화질과 음질이 우수하며, 당대의 관습대로 독일어로 노래하였다. [흑백 화면 / 모노 녹음]

[보조자료]

○ 80세를 넘긴 베르디가 작곡한 〈팔스타프〉는 세상을 바라보는 노작곡가의 통찰력과 예술적인 완성도가 극한까지 이른 최고의 명작으로 꼽힌다. 평생토록 역사와 인생의 진실을 밝혀내는데 헌신했던 베르디가 마지막 작품을 이토록 유쾌하고 호탕한 희극으로 마무리했다는 점도 흥미롭다. 결과적으로 이 오페라는 셰익스피어의 원작보다 극적으로도 더 훌륭하다는 찬사를 받은 한다.

○ 1917년 빈에서 태어난 오토 에델만은 게라의 작은 극장에서 〈피가로의 결혼〉의 피가로로 데뷔한 이래, 빈 슈타츠포퍼, 메트,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등의 일급 무대들을 거치면서 20세기 중반의 위대한 베이스 가수로 큰 명성을 얻었다. 〈마이스터징거〉의 한스 작스로 일세를 풍미했으며, 바리톤 성역에서도 빼어난 활약을 펼쳤다.

○ 1931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지휘자 넬로 산티는 최근까지도 여든이 넘는 노구를 이끌고 포디움 위를 오르고 있는 오페라계의 살아있는 전설이다. '파파 산티'라는 애칭이 말해주듯, 이 등직한 풍채의 노장은 많은 후배 음악인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본 영상은 그가 막 오페라계의 기린아로 각광받던 시점인 1963년에 녹화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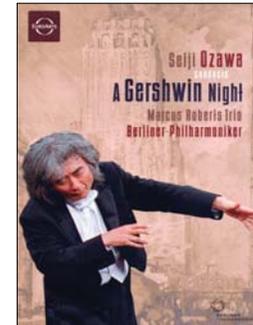
EuroArts DVD 2054619

에후디 메뉴인: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자료적 가치를 넘어 연주 자체가 경이로운 1947년의 역사적 영상물

음반 역사에서 1947년이면 33회전의 LP 레코드가 막 개발 완료되었으나 시장에 출시되기 직전일 정도로 옛날이다. 그런데 그런 시절에 31살의 에후디 메뉴인은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영상으로 남겼다. 물론 그 이전에도 여러 연주자의 단편적인 영상은 존재하지만 이처럼 감상용으로 만든 음악영상물로는 역사상 최초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멘델스존의 협주곡은 물론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4번과 5번, 사라시테의 '스페인 무곡', 바치니의 '칼라브레즈'에 이르기까지 과연 신동다운 천의무봉(天衣無縫)의 솜씨를 자랑하는 메뉴인의 전성기 모습을 만끽할 수 있다. 흑백이고 모노지만 시대를 감안하면 대단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흑백화면 / 모노 녹음]



EuroArts DVD 2053098

2003년 베를린 필하모닉의 발트뷔네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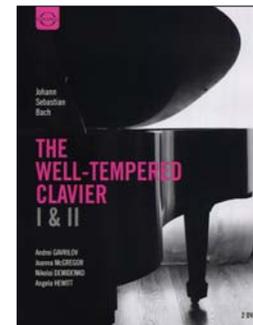
거쉰: 파리의 아메리카인, 랩소디 인 블루, 피아노협주곡 외

최고의 클래식 오케스트라와 실력파 재즈 뮤지션들의 황금빛 만남

매년 여름마다 베를린 교외의 숲속에서 펼쳐지는 베를린 필의 발트뷔네 콘서트는 빈 필하모닉의 신년음악회와 더불어 전 세계 클래식 애호가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빅 이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본 출신의 세계적인 거장 세이지 오자와가 지휘봉을 잡았던 2003년의 콘서트는 조지 거쉰의 대표곡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5살 때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노력을 통해 세계 최정상급의 재즈 피아니스트로 등극한 마커스 로버츠가 특별히 참여하여 재즈와 클래식이 조화를 이룬 거쉰의 개성적인 음악 세계를 더욱 감동적으로 펼쳐 보인다. 김연아 선수에게 밴쿠버의 영광을 선사했던 거쉰의 피아노협주곡이 포함되어 있기에 더욱 우리 음악애호가들에게는 더욱 각별한 느낌으로 다가올 영상물이다.

JS 바흐: 평균율 1,2권 전곡

안드레이 가브리엘로프, 조안나 맥그레거, 니콜라이 데미덴코, 안젤라 휴이트 (피아노)



EuroArts DVD 2050308 [2DV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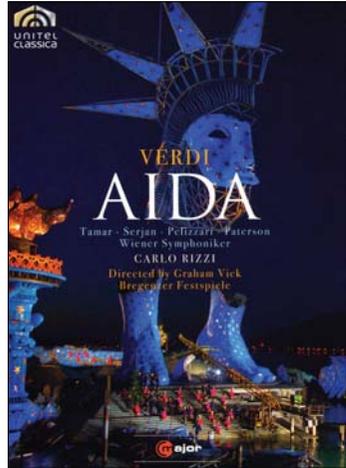
세련된 영상 속에 담긴 서양음악의 구약성서

바흐는 평균율의 범용성을 증명하기 위해 24개의 조성 각각에 의한 프렐류드와 푸가로 구성된 건반작품집을 20년의 시간차를 두고 두 권이나 완성하였다. 이것이 바로 서양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반작품집의 하나로 손꼽히는 평균율 클라비어 1,2권이다. 본 DVD는 4명의 정상급 피아니스트들을 동원하여 평균율 1,2권의 전곡 연주를 녹화한 것으로, 각 연주자들의 빼어난 연주뿐만 아니라 각 곡들마다 차별화된 조명과 카메라앵글 등을 통해 귀와 눈 양쪽 모두를 만족시켜주는 완성도 높은 영상물이다. 각각 1974년과 1978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우승자들인 안드레이 가브리엘로프와 니콜라이 데미덴코, 영국이 자랑하는 여류 피아니스트 조안나 맥그레거, 바흐를 비롯한 바로크 건반작품들을 통해 최고의 찬사를 얻고 있는 캐나다 출신의 안젤라 휴이트가 이 걸출한 프로젝트에 함께 하였다.



C Major Entertainment DVD

www.cmajor-entertainment.com



C-Major 702308

베르디: 아이다

타티아나 세란(아이다)/ 루벤스 펠리차리(라다메스)/ 야노 타마르(암네리스)
 얀 페터슨(아모나스루) 외/ 카를로 리치/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

스펙터클의 극치를 보여주는 호반 무대 위의 아이다

매년 여름 보덴호수에서 펼쳐지는 브레겐츠 페스티벌은 야외무대의 특성을 살린 화려하고도 파격적인 무대미술로 오페라 애호가들의 큰 주목을 받아왔다. 그레이엄 비크가 연출한 2009년의 <아이다> 프로덕션은 수상무대라는 브레겐츠의 개성과 이 오페라 본연의 스펙터클한 볼거리를 멋지게 결합시켰던 화제만발의 공연이었다. 비크는 고대의 이집트가 아닌 현대의 미국으로 오페라의 배경을 바꾸어 놓았다. 식상한 스프링크스와 오벨리스크 대신 뉴욕 자유의 여신상의 거대한 파편 앞에서 이 장대한 오페라가 펼쳐지며, 두건을 뒤집어 쓴 에티오피아 포로들의 모습은 관타나모 수용소의 이라크 포로들을 떠올리게 한다. 개설행진곡의 거대한 코끼리 모형이나 피날레를 멋지게 장식하며 승천하는 배 등등 볼거리가 즐비하며, 호수의 수면 그 자체가 오페라의 배경으로 멋지게 활용되었다.

[보조자료]

○ <아이다>는 원숙기의 베르디가 작곡한 명작답게 다른 작품과 구분되는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1막과 2막을 화려한 볼거리로 치장한 다음 3막과 4막에서 역대 어느 오페라보다도 깊이 있는 휴먼 드라마로 만들었다는 것에 있다. '개설행진곡'에만 열광하는 관객은 후반부가 지루하다고 할지 모르나, 오페라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3막과 4막이야말로 베르디 오페라의 진수로 평가한다.

○ 오스트리아의 브레겐츠 페스티벌은 스위스 국경 인근의 보덴호수 위의 거대한 무대에 고정 세트를 설치하여 한여름 내내 공연한다. 2년 동안 한 작품만을 올리는 것이 원칙이다. 2005/6년 프로그램이 <일 트로바토레>(Opus Arte에서 DVD출시)였고, 2007/8년 프로그램은 <토스카>(Phoenix Editon에서 DVD출시)였다. 본 <아이다>는 2009년 7월에 공연된 것이다. 객석은 호반에 설치되었으므로 관객들은 호수 쪽을 바라보면서 정면에 설치된 무대의 오페라를 즐긴다.

○ 영국의 정상급 오페라 연출가 그레이엄 비크는 90년대 글라인드본 오페라의 제작감독으로 재직하면서 이 나라를 대표하는 오페라 연출가로 명성을 얻었다. 스펙터클한 무대와 화려한 볼거리를 지향하는 그의 프로덕션은 베로나 아레나와 같은 거대한 야외무대에서 특히 두각을 드러내었다. 본 브레겐츠의 <아이다>에서도 이 연출가의 재능이 십분 발휘되었다.



Dynamic DVD

www.dynamic.it



Dynamic DVD 33645

헨델: 아치, 갈라테아와 폴리페모

루스 로지크(아치)/ 사라 밍가르도(갈라테아)/ 안토니오 아베테(폴리페모)/ 안토니오 플로리오/ 카펠라 델라 피에타 데 투르키니

오페라와 마임의 이종주로 연출된 헨델의 초기 세레나타

오비디우스의 '메타모르포시스'에 나오는 목동 아치와 님프 갈라테아의 비극적인 사랑은 헨델의 창작열을 자극했다. 헨델은 청년기에 이탈리아어 세레나타 <아치, 갈라테아와 폴리페모>를 완성하였고, 그로부터 10년 뒤에도 동일한 내용의 영어 전원극인 <아시스와 갈라테아>를 만들기도 했다. 본 DVD는 2009년 작곡가의 서거 250주기를 기념하여 토리노의 레지오 극장과 나폴리의 산 카를로 극장이 공동 제작한 프로덕션을 담은 것이다. 연출가 다비데 리베르모레는 오페라와 팬터마임을 결합한 독특한 스타일로 이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세 배역은 노래하는 가수 외에도 마임을 전담하는 배우에 의해 이중으로 표현된다. 흑암의 개성적인 보이스칼라의 소유자 사라 밍가르도가 갈라테아를 노래하였고, 바로크 성악곡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베이스 안토니오 아베테가 성격적인 폴리페모를 열연하였다.

[보조자료]

○ 세레나타 또는 드라마틱 칸타타로 분류되는 작품인 <아치, 갈라테아와 폴리페모>는 헨델이 이탈리아에 체류하던 무렵인 1708년 나폴리에서 초연되었다. 알비토 공작의 결혼 축하연을 위해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작품은 오비디우스의 '메타모르포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니콜라이 귀보의 이탈리아어 리브레토에 곡을 붙인 것이다. 헨델은 1718년 유사한 내용의 존 게이 영어 리브레토를 토대로 전원오페라 <아시스와 갈라테아>를 완성하였는데, <아치, 갈라테아와 폴리페모>의 음악의 일부도 이 작품에 전용되기도 했다.

○ 오페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님프 갈라테아는 목동 아치와 사랑에 빠졌다. 갈라테아를 짝사랑하는 폴리페모는 질투에 눈멀어 자신의 분노를 폭발시킨다. 폴리페모는 갈라테아를 괴롭히자, 아치는 자신을 대신 괴롭힐 것을 부탁한다. 폴리페모가 아시스를 살해하면서 이들의 사랑도 종말을 맞는다. 갈라테아는 연인을 잃은 비탄에 잠겨 아버지 네레우스에게 자신의 연인을 낚물로 환생시켜 줄 것을 부탁하고는 바다에 몸을 던진다. 낚물이 된 아치와 바다에서 갈라테아와 영원한 결합을 이루게 된다.



Dynamic DVD 33641

몬테베르디: 울리세의 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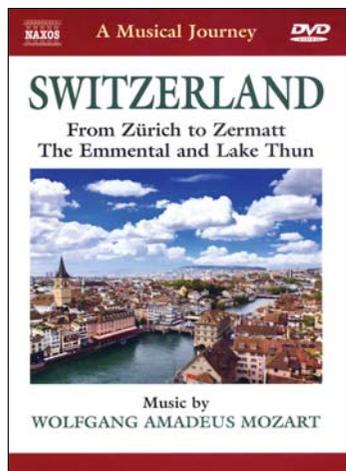
크리스티와 피치가 만나 놀라운 빛을 발한 신화 오페라의 고전

울리세는 그리스 신화의 오디세이, 라틴어의 울리시즈와 동일한 인물을 이탈리아어로 표기한 것이다. 트로이와의 싸움을 마치고 고향인 이타카로 돌아오는 길에 길고 험난한 모험을 겪는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 마지막 이야기는 소식이 끊긴 남편을 끝까지 기다리는 페넬로페 앞에 드디어 나타난 울리세가 그간 아내를 괴롭힌 구혼자들을 일거에 몰리치고 행복하게 재결합한다는 내용이다. 오페라 탄생기의 가장 위대한 작곡가인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는 1641년 베네치아에서 74세의 노구를 이끌고 <울리세의 귀환>을 초연했다. 그 이후 그리스 신화를 다룬 가장 뛰어난 오페라의 하나로 지금까지 절찬을 받아왔다. 그러면서도 몬테베르디의 다른 오페라인 <오르페오>, <포페아의 대관>에 비해서는 덜 알려져 있었다. 지극히 고전적 작품인 까닭이다. 바로크 오페라 해석의 최고 권위자 윌리엄 크리스티는 신화적 오페라 연출의 일인자 피에르 루이지 피치와 협력하여 <오르페오>에 이은 몬테베르디 시리즈의 두 번째 작업으로 <울리세의 귀환>을 마드리드의 테아트르 레알 가르장 무대에 올렸다. 타이틀 롤인 코비 판 렌스부르트, 페넬로페 역의 크리스틴 라이스를 비롯한 모든 배역의 경이로운 가창, 피치 특유의 화려한 색깔, 섬세한 연기가 최고의 빛을 발한 기념비적 영상물이다.



Naxos DVD

www.naxo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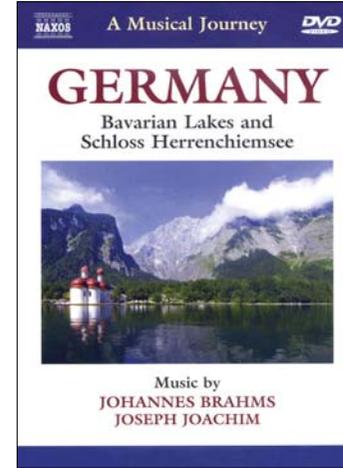


Naxos DVD 2.110241

스위스 취리히에서 체르마트까지

알프스의 나라, 스위스 취리히에서 마테호른에 이르는 흥미로운 여정

스위스는 알프스의 나라다. 그 아름다운 풍광과 수많은 호수는 알프스 산맥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수도 취리히는 실크 산업으로 부를 축적하였고 이후에 다양한 경로를 거쳐 지금은 금융을 위시한 국제도시의 위용을 갖추고 있다. 취리히의 배후에 취리히 호수가 있다. 농장과 치즈로 유명한 에멘탈은 25마일에 이르는 계곡 지역이다. 에멘탈의 배후에는 툰 호수가 있다. 장크트 갈렌은 중세시대의 수도원으로 유명한 곳이다. 본격적으로 산악지대로 여행한다면 스키어들을 위한 최고의 휴양지 체르마트를 빼놓을 수 없다. 알프스에서 가장 유명한 마테호른 봉우리가 있는 곳이다. 마테호른은 1865년 영국 탐험대가 최초로 정복하였으나 하산 길에 미끄러져 4명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에도 마테호른의 희생자는 줄줄이 이어졌고 그 무덤이 모인 마을도 있다. 체르마트에서 오르는 철도, 겨울과는 사뭇 다른 한여름의 체르마트 풍광도 소개된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과 2번, 그리고 생상이 바이올린용으로 편곡한 피아노 협주곡 제21번의 2악장(영화 '엘비라 마디간' 주제곡)을 들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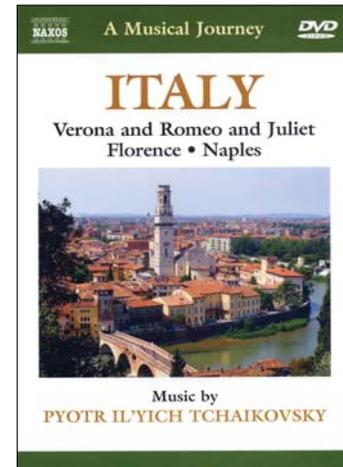


Naxos DVD 2.110244

독일 바바리아 지방의 호수들

독일 남부 바바리아(바이에른) 지방의 아름다운 호수, 그리고 브람스

독일의 북부와 남부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 가톨릭 권역인 남부는 종교뿐 아니라 전반적인 문화와 분위기도 오스트리아, 그리고 라틴권과 닮은 구석이 많아 독일의 전형적인 모습과 구별된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바바리아(바이에른)다. 오스트리아, 스위스와 접경을 이루는 바바리아의 자연은 넓은 의미에서 알프스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호수가 많다. 해발 1975피트에 위치한 쾨니히 호수에는 관광객을 실은 배들이 떠다니고 그 남쪽 끝에는 성 바르톨로뮤 성당이 있다. 바바리아 숲 인근의 도나우스타우프에서는 10세기에 세워진 고성의 잔해가 인상적이다. 베르호테스가텐 국립공원은 쾨니히 호수를 포함하는 지역이며 평화로운 목장 풍경이 펼쳐진다. 바바리아 지방에서 가장 큰 키엠제 호수의 섬에는 바그너를 숭배한 루트비히 2세가 만든 솔로스 헤렌킴제라는 궁전이 유명하다. 베르사이유 궁전에 대한 루크비히식 답변인데 많은 분수와 동물상, 인물상이 배치되어 있다. 브람스의 교향곡 제2번이 흐른다. 브람스는 북독일의 함부르크 태생이고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생의 많은 부분을 보냈지만 인간을 위로하는 부드러운 선율과 깊은 사색은 바바리아 지방의 자연과 잘 어울린다.



Naxos DVD 2.110253

이탈리아 베로나, 피렌체, 나폴리

차이코프스키 음악과 이탈리아 옛 도시들의 절묘한 조합

추운 북쪽 사람들은 따뜻한 남쪽을 동경한다. 독일, 영국 사람들은 이탈리아를, 프랑스, 러시아 사람은 스페인을 동경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표트르 차이코프스키는 러시아 사람이면서도 이탈리아를 특별히 사랑했다. 베로나를 배경으로 한 환상서곡 <로미오와 줄리엣>, 4악장의 현악6중주곡인 <피렌체의 추억>, 이탈리아 멜로디에 기초한 <이탈리아 기상곡>이 그런 예이다. 우선 베로나부터 여행한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셰익스피어의 희곡보다 훨씬 전부터 이 고장에는 이들에 대한 민담과 소설이 있었다. 셰익스피어 덕분에 국경을 넘어 유명해진 것일 뿐이다. 그래서 후대에 이르러 줄리엣의 발코니, 그녀의 무덤 등으로 알려진 관광명소가 생겨났다. 베로나에는 이밖에도 여러 광장과 교량들, 오페라 페스티벌이 열리는 고대 로마 시대의 원형경기장이 유명하다. 꽃의 도시 피렌체는 두말할 것 없이 르네상스의 중심지였다. 명문가의 아름다운 궁전과 정원, 전설적인 미술가들의 예술작품은 이 도시를 더욱 빛나게 만든다. 차이코프스키 하우스라 불리는 곳도 있다. <이탈리아 기상곡>은 남부의 열정적인 항구도시 나폴리로 안내한다. 3대 미항으로 불리는 푸른 바다, 아직도 활화산이라는 베수비오 화산, 왕가가 머물던 카스텔 누오보 성, 고대 로마 시대의 목욕탕 유적지 등을 돌아본다.

NAXOS RINGTONE (코드링) SERVICE

낙소스의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이제는 핸드폰으로 바로 컬러링(통화연결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필요없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TRACK	코드링 (40초)	코드링 (60초)
Rodgers: Do-Re-Mi (도레미 송)	##7168011	##7268011
Bernstein: West Side Story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7168040	##7268040
Chabrier: Espana (에스파냐)	##7168012	##7268012
Verdi: La Traviata - Drinking Song (축배의 노래)	##7168013	##7268013
Brahms: Cradle Song (자장가)	##7168014	##7268014
Paganini: La Campanella (라 캄파넬라)	##7168015	##7268015
Piazzolla: Libertango (리베르탱고)	##7168016	##7268016
Offenbach: Can-Can (캉캉)	##7168017	##7268017
Strayhorn: Take the 'A' Train	##7168018	##7268018
Caravan	##7168019	##7268019
Un bel di vedremo (어느 개인 날)	##7168020	##7268020
Anderson: Blue Tango (블루탱고)	##7168021	##7268021
Anderson: Belle of the Ball	##7168022	##7268022
Anderson: Chicken Reel	##7168023	##7268023
Fiddle-Fiddle	##7168024	##7268024
Sleeping Beauty: Waltz (잠자는 숲속의 공주:왈츠)	##7168025	##7268025
Swan Lake: Waltz (백조의 호수: 왈츠)	##7168026	##7268026
The Nutcracker: March (호두까기인형: 행진곡)	##7168027	##7268027
The Nutcracker: Dance of the Sugar Plum Fairies (호두까기 인형: 사랑요정의 춤)	##7168028	##7268028
The Nutcracker: Chinese Dance (호두까기 인형: 중국인형의 춤)	##7168029	##7268029

이용방법 (How to use) >>
 곡의 코드링 입력 후 통화 누르기 ➔ ①미리듣기 ②구매 ③선물하기 선택
 예) 도레미 송 60초 컬러링 이용방법
 ##7268011 + 통화 _ 음성안내 에 따라 번호 선택 후 구매.
 40초-1,200원 | 60초 - 1,300원



NAXOS RINGTONE (코드링) SERVICE

낙소스의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이제는 핸드폰으로 바로 컬러링(통화연결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필요없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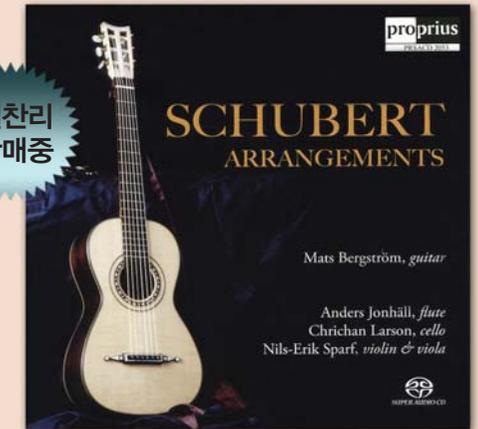
TRACK	일반 코드링 (40초)	롱 코드링 (60초)
Vivaldi: The 4 Seasons Violin Concerto Op.8 No.3 Autumn - I. Allegro	##7170133	##7270133
Bolling: Baroque And Blue	##7170134	##7270134
Bolling: Javanaise	##7170135	##7270135
Bolling: Javanaise	##7170135	##7270135
Bolling: Irish Dances	##7170136	##7270136
Bolling: Amoureuse	##7170137	##7270137
Bolling: Jazzy	##7170138	##7270138
Garnier: Misty	##7170139	##7270139
Albeniz: Suite Espanola No.1 Op.47 - Cuba (스페인 모음곡 1번 - 쿠바)	##7170140	##7270140
Berlin: I'll see you in Cuba	##7170141	##7270141
Damare: Le Merle Blanc Op. 161 (다마레: 하얀 티티새)	##7170142	##7270142
Faure: Berceuse Op.16 (포레: 자장가)	##7170143	##7270143
Piazzolla: Histoire Du Tango - Bordel 1900 (탱고의 역사 - 선술집)	##7170144	##7270144
Schubert: Piano Quintet in A Major, D.667 'Trout' - Theme with Variations - Allegro Giusto	##7170145	##7270145
Over The Rainbow	##7170146	##7270146
We'll Meet Again	##7170147	##7270147
La Mer	##7170148	##7270148
Williams: Star Wars - Main Title	##7170149	##7270149
Mr. Lee	##7170150	##7270150
Feaster: Sh-Boom	##7170151	##7270151
Berry: Maybelline	##7170152	##7270152

이용방법 (How to use) >>
 곡의 코드링 입력 후 '통화' 누르기 ➔ ①미리듣기 ②구매 ③선물하기 ➔ 선택
 예) '다마레: 하얀 티티새' 롱 컬러링(60초) 이용방법
 ##7270142 + 통화 _ 음성안내 에 따라 번호 선택 후 구매.
 SK Telecom 이용고객에 한하여 사용가능.

40초 - 1,200원
 60초 - 1,300원



로맨틱 기타의 맑고 아담한 울림으로 담아낸 슈베르트의 아름다운 실내악 작품들



절찬리 판매중

PRSACD2053 [Hybrid-SACD]

슈베르트: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소나타 D장조 외
 마츠 베르그스트룀(guitar)/ 닐스 에릭 스파르프(vn)/ 크리한 라르손(va)외
 바이올린 소나타 D384의 피아노 반주는 기타를 통해 한결 단아한 맵시를 드러내며
 첼로와 기타로 연주한 아르페지오 소나타와 바로크 플루트와 기타로 연주한
 15개의 오리지널 댄스의 다정다감한 매력 또한 각별하다.
 슈베르트가 플루트, 기타, 비올라, 첼로의 사중주를 위해 편곡한
 마티에카의 노투르노가 음반의 대미를 장식한다.



표지사진
 신명의 음악가 임동창
 photo by 문덕관

<아울로스뉴스> 2010년 7월호
 통권 제 44호 발행 : 2010년 8월 4일
 발행인 : 임용욱
 출력 : 좋은그림 인쇄 : (주)투데이아트

발행처 :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홈페이지 : www.aulosmedia.co.kr
 e-mail : aulos@aulosmusic.co.kr
 원고 및 광고문의 : 02-922-0100(代)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